

한국대동어문

- 결정판

저자: 허대동

일러두기

1. ‘한국대동어문’ 발표 이후 중요 연구의 보충본 다음 결정본입니다.
2. 절대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논문 및 기타 저서에 제 이름이 들어간 법적 표준 인용, 참조 등은 가능합니다.

1. 합용병서란 무엇인가?

쉽게 말하자면 2개의 다른 모습의 자음입니다. 현재 우리말에는 같은 모습의 자음이 쌍자음¹⁾으로 5개만 남아 있습니다. 이를 한자어로 병서(並書)라고 합니다. 이 병서는 각자병서(各字並書)와 합용병서(合用並書)²⁾로 나누는데, 현재 합용병서는 각자병서의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훈민정음 시절 합용병서는 2개의 자음으로 된 ㄷㅌ, ㅃ, ㅈㅊ, ㅊㅌ/ ㅌㅊ, ㅌㅎ, ㅌㄷ, ㅌㅂ과 3개의 자음으로 된 ㅃㅌ, ㅃㅎ 이 있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 합용병서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말과 한자어의 결합어가 합용병서임을 밝히겠습니다. 우리말 ‘사나이’의 옛말은 ‘싸히, 스나히’³⁾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말 초성 ‘ㅌ’이 ‘ㅌ’과 ‘ㄴ’으로 분리됩니다. 이를 우리말과 한자어 사이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무를 한자어로 수목(樹木)이라 합니다. 우리말 무는 한자어 ‘목’이 됩니다. 만약 나무의 원어가 ‘스나무’라면, ‘ㅌ’에 맞춘 한자어 ‘수(樹)’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초성과 한자어 사이, 그리고 우리말과 서양언어(독어, 영어 등)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말, 한자어, 영어 사이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모래 사(沙), 앞 합용병서 이치를 모래에 적용해보면, 모래 앞에 ㅌ을 붙일 수 있습니다. ㅌ모래에서 ㅌ의 사(沙), 그리고 영어의 sand[샌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우리말 초성 앞에 어떤 소리가 분리되어 한자어와 전 세계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과 한자어의 기본적인 단어 대응을 조금 열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1) 물 수(水), ㅌ물
- 2) 뫼 산(山), ㅌ뫼
- 3) 머리 수(首), ㅌ머리
- 4) 마음 심(心), ㅌ마음
- 5) 몸 신(身), ㅌ몸
- 6) 말을 사(司), ㅌ말다

ㅌ 앞에 ㅌ 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ㄱ, ㄴ, ㄷ, ㅂ 등 모든 초성에 ㅌ이 모두 있었다고 보면 바로 우리 한국배달어가 되는 것입니다.

2. 합용병서 쉽게 이해하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합용병서에 ㅌㅊ, ㅌㅎ, ㅌㄷ, ㅌㅂ 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합용병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는 ‘ㅌㅎ’이 첫 음으로 여기 ㅎ에서 ㄱ, ㄴ, ㄷ, ㅂ 이 나온다 라고 이해하면 더 쉽게 그 이치를 깨우칠 수 있습니다. ㄷㅌ, ㅃ, ㅈㅊ, ㅊㅌ 도 마찬가지입니다. ㅂ 옆에 ㅎ 이 있다면 더 이해하기 좋습니다. ㅎ의 변음이 ㄷ, ㅌ, ㅈ, ㅊ 으로 나타납니다. 바다 해(海)의 경우, 옆에 ㅎ 이 있다면 굳이 ㅂ의 변음이라 안해도 됩니다. 더 원어로 올라가면, ㅎㅎ 이라 추리할 수 있습니다. 훈민정음 초기에는 있었던 각자병서입니다.

1) ㄱㅌ, ㄷㅌ, ㅃㅌ, ㅈㅌ, ㅊㅌ

2) 훈민정음의 이해, 신상순·이돈주·이환득, 한신문화사, 41쪽

3)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그래서 ㅅㄱ, ㅅㄴ, ㅅㄷ, ㅅㅂ 도 ㅎㅎ 에서 나온 것이고 ㅂㄷ, ㅃ, ㅂㅈ, ㅂㅌ 도 ㅎㅎ 에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용병서의 출처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간 단계의 ㅅㅎ 에서 나온 ㅅㄱ, ㅅㄴ, ㅅㄷ, ㅅㅂ 과 ㅂㅎ 에서 나온 ㅂㄷ, ㅃ, ㅂㅈ, ㅂㅌ 이라 하면 됩니다.

실제 우리 환족 일파인 인도인들에게는 몇 개의 초성 옆에 ㅎ 을 남겨두고 있는데, kh, gh, ch, jh, th, dh, ph, bh 가 현재에도 정확히 남아 있습니다.⁴⁾

그래서 ㄴ의 경우 현재 각자병서 ㄴㄴ과 합용병서 ㅅㄴ 으로 남아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ㄴㅎ에서 나온 각자병서 ㄴㄴ과 합용병서 ㅅ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ㄴㅎ에서 나온 최대 병서의 소리로는 ㄴㄱ, ㄴㄴ, ㄴㄷ, ㄴㄹ, ㄴㅁ, ㄴㅂ, ㄴㅅ, ㄴㅇ, ㄴㅈ, ㄴㅊ, ㄴㅋ, ㄴㅌ, ㄴㅍ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초성에서는 다 사라졌지만, '않다' 에서 보듯이 종성에는 'ㄴ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추리를 통해서 우리말과 한자어 사이의 ㄴ 과 ㄱ 의 존재 법칙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 꺾/국(國), 노래 가(歌), 놀랄 경(驚), 높을 고(高)의 예가 있습니다. ㄴ안에 ㄴㄱ 이 있는 것, 즉 '나라'라면, 처음에는 'ㄴ하라' 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ㄴㅎ'에서 'ㅎ'의 변음 'ㄱ' 이 나오고, 'ㅎ' 그대로 '누털 황(黃)', 즉 'ㄴ후령다' 의 'ㄴㅎ' 중 'ㅎ'의 황이 됩니다. 이전 연구대로 그냥 쉽게 ㄴ 에서 ㅎ 으로 간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보자면,

ㄱㅎ 에서 ㄱㄱ, ㄱㄴ, ㄱㄷ, ㄱㄹ, ㄱㅁ, ㄱㅂ, ㄱㅅ, ㄱㅇ, ㄱㅈ, ㄱㅊ, ㄱㅋ, ㄱㅌ, ㄱㅍ
 ㄴㅎ 에서 ㄴㄱ, ㄴㄴ, ㄴㄷ, ㄴㄹ, ㄴㅁ, ㄴㅂ, ㄴㅅ, ㄴㅇ, ㄴㅈ, ㄴㅊ, ㄴㅋ, ㄴㅌ, ㄴㅍ
 ㄷㅎ 에서 ㄷㄱ, ㄷㄴ, ㄷㄷ, ㄷㄹ, ㄷㅁ, ㄷㅂ, ㄷㅅ, ㄷㅇ, ㄷㅈ, ㄷㅊ, ㄷㅋ, ㄷㅌ, ㄷㅍ
 ㄹㅎ 에서 ㄹㄱ, ㄹㄴ, ㄹㄷ, ㄹㄹ, ㄹㅁ, ㄹㅂ, ㄹㅅ, ㄹㅇ, ㄹㅈ, ㄹㅊ, ㄹㅋ, ㄹㅌ, ㄹㅍ
 ㅁㅎ 에서 ㅁㄱ, ㅁㄴ, ㅁㄷ, ㅁㄹ, ㅁㅁ, ㅁㅂ, ㅁㅅ, ㅁㅇ, ㅁㅈ, ㅁㅊ, ㅁㅋ, ㅁㅌ, ㅁㅍ
 ㅂㅎ 에서 ㅂㄱ, ㅂㄴ, ㅂㄷ, ㅂㄹ, ㅂㅁ, ㅂㅂ, ㅂㅅ, ㅂㅇ, ㅂㅈ, ㅂㅊ, ㅂㅋ, ㅂㅌ, ㅂㅍ
 ㅅㅎ 에서 ㅅㄱ, ㅅㄴ, ㅅㄷ, ㅅㄹ, ㅅㅁ, ㅅㅂ, ㅅㅅ, ㅅㅇ, ㅅㅈ, ㅅㅊ, ㅅㅋ, ㅅㅌ, ㅅㅍ
 ㅇㅎ 에서 ㅇㄱ, ㅇㄴ, ㅇㄷ, ㅇㄹ, ㅇㅁ, ㅇㅂ, ㅇㅅ, ㅇㅇ, ㅇㅈ, ㅇㅊ, ㅇㅋ, ㅇㅌ, ㅇㅍ
 ㅈㅎ 에서 ㅈㄱ, ㅈㄴ, ㅈㄷ, ㅈㄹ, ㅈㅁ, ㅈㅂ, ㅈㅅ, ㅈㅇ, ㅈㅈ, ㅈㅊ, ㅈㅋ, ㅈㅌ, ㅈㅍ
 ㅊㅎ 에서 ㅊㄱ, ㅊㄴ, ㅊㄷ, ㅊㄹ, ㅊㅁ, ㅊㅂ, ㅊㅅ, ㅊㅇ, ㅊㅈ, ㅊㅊ, ㅊㅋ, ㅊㅌ, ㅊㅍ
 ㅋㅎ 에서 ㅋㄱ, ㅋㄴ, ㅋㄷ, ㅋㄹ, ㅋㅁ, ㅋㅂ, ㅋㅅ, ㅋㅇ, ㅋㅈ, ㅋㅊ, ㅋㅋ, ㅋㅌ, ㅋㅍ
 ㅌㅎ 에서 ㅌㄱ, ㅌㄴ, ㅌㄷ, ㅌㄹ, ㅌㅁ, ㅌㅂ, ㅌㅅ, ㅌㅇ, ㅌㅈ, ㅌㅊ, ㅌㅋ, ㅌㅌ, ㅌㅍ
 ㅍㅎ 에서 ㅍㄱ, ㅍㄴ, ㅍㄷ, ㅍㄹ, ㅍㅁ, ㅍㅂ, ㅍㅅ, ㅍㅇ, ㅍㅈ, ㅍㅊ, ㅍㅋ, ㅍㅌ, ㅍㅍ
 ㅎㅎ 에서 ㅎㄱ, ㅎㄴ, ㅎㄷ, ㅎㄹ, ㅎㅁ, ㅎㅂ, ㅎㅅ, ㅎㅇ, ㅎㅈ, ㅎㅊ, ㅎㅋ, ㅎㅌ, ㅎㅍ

그래서 ㅎ은 모든 초성에 대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초성 ㅃㄱ, ㅃㄷ 이 있으니 최대 ㅎㅎㅎ 까지 혹은 ㅎ을 변화시켜 ㅂㅎㅎ 까지 원 초성 음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음 3개가 우리 옛말에 남아 있으니, 최대의 3개 자음 수는 엄청난 수가 될 것이고 곧 전 세계어를 포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http://www.omniglot.com/writing/brahmi.htm>

3. 3개 자음의 경우

현 3개의 자음은 ㅂ, ㅅ 2개만 남아 있습니다. 그중 ㅅ의 ‘ㅅ’⁵⁾를 살펴보겠습니다. 때 시(時)의 한자어 ‘시’는 ‘ㅅㅅ’ 중 ‘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 한자어와 우리말이 합쳐 ‘시시(時時)때때’란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말이나 한자어나 동일하게 ‘ㅅ’였습시다.

다음 ‘꿀’에 해당하는 자음 3개를 보겠습니다. 꿀의 옛말은 ‘뿔’⁶⁾입니다. 한자어로 ‘밀(密)’이니 이는 ‘ㅅㅅ’에서 ‘ㅅ’의 변음 ‘ㅁ’이라고 봅니다. ㅁ, ㅂ, ㅍ은 동일한 순음 계열로서 서로 쉽게 변합니다. 이 ‘ㅅㅅ’ 3개가 ‘ㅅ’이 사라진 후 2개로 줄어들면, ‘ㅅ’으로 나타납니다. 이 ‘ㅅ’이 각자병서가 되어 ‘ㅅ’의 ‘꿀’이 됩니다.⁷⁾

4. 합용병서의 구체적인 예

지금부터는 우리말에 남아 있는 합용병서를 통해서 한자어 혹은 영어로의 분파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편의상 ㅂ과 결합한 합용병서 ‘ㅂㅅ, ㅂㅅ, ㅂㅅ, ㅂㅅ’를 살펴보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쉬운 ‘ㅂㅅ’⁸⁾를 보겠습니다. 합용병서 ㅂㅅ은 쌍자음 ㅂㅅ으로 나타납니다.

1) ㅂㅅ=뜰 부(浮)

우리 옛말 ‘ㅂㅅ’에서 ㅂ은 ‘부(浮)’, ㅅ이 ㅅ음에 따라 가면서 합용병서에서 각자병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 현대 한국어 ‘ㅂㅅ’가 생기게 된 것이고, 원래 ‘ㅂㅅ’의 앞 초성 ‘ㅂ’ 중 ‘ㅂ’에 맞춘 ‘부’가 나온 것입니다. 영어는 순음 ‘ㅁ, ㅂ, ㅍ’에서 ‘ㅍ’의 ‘프로트 float’가 됩니다.

2) ㅂㅅ2, 熊 뜰 부 출처 : 훈몽자회(예산 문고본)(1527) 하:6 9)

네이버 ‘ㅂㅅ’에 등재된 2번째 단어입니다. 네이버 한자 사전에 ‘삶을 부’라 되어 있지만, 훈몽자회에는 ‘뜰 부’라 되어 있습니다. 역시 초성 ‘ㅂ’ 중 ‘ㅂ’에 맞춘 ‘부’가 나온 것입니다.

3) ㅂㅅ3

‘떠나다’란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출발(出發)의 ‘발(發)’로서 ‘발(發)’의 여러 의미 중 ‘떠나다’입니다. 이렇게 우리말 ‘합용병서’에서 나온 한자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6)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7) 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8)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9)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4) 뜻 지(志)

뜻의 옛말은 ‘뜻’¹⁰⁾입니다. 우리말은 합용병서에서 각자병서로 변환 것이고, 한자음은 ‘ㅂㅈ’ 중에서 ‘ㅈ’의 변음 ‘ㅈ’입니다. 혹은 ‘ㅂㅈ’에서 더 원음이었던 3개의 초성 ‘ㅂㅅㅈ’에서 ‘ㅅ’의 변음 ‘ㅈ’으로 보아도 됩니다.

5) 뜯다, 뜯다¹¹⁾=뜯다

우리말 ‘뜯다’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물건을 찢어 뜯어내는 것이란 의미가 있고, 다음 현악기를 통겨 소리를 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단어는 또한 ‘ㅂㅈ’ 초성이 ‘ㅂㅌ’으로도 변환 음가를 동시에 표기하고 있으며, ‘ㅂㅈ’에서 ‘ㅅㅈ’¹²⁾으로 변하는 과정도 보여줍니다. 한자어로는 ‘뜯을 모(耄)’가 있으니, ‘ㅂㅈ’에서 ‘ㅂ’의 변음 ‘ㅍ’이라고 봅니다. 영어는 테어 tear입니다.

6) 떼배/떼=떼 ¹³⁾

한자어로는 ‘큰 떼 패(簍)’와 ‘벌(筏)’이 나오는데, 역시 우리말 ‘ㅂㅈ’ 중 ‘ㅂ’에 맞춘 ‘벌’, ‘ㅂㅈ’ 중에서 ‘ㅂ’의 변음 ‘ㅍ’입니다.

7) 떨치다¹⁴⁾

‘떨치다/떨구다’라는 것으로 ‘抖 떨틸 두’와 ‘擻 들틸 수/떨틸 수’가 있습니다. 초성 부분이 합용병서 ‘ㅂㅈ’이니 ‘ㅈ’의 ‘두’이고, ‘ㅂㅈ’의 원 음가라고 볼 수 있는 ‘ㅂㅅㅈ’ 중 ‘ㅅ’의 ‘수’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 우리 자음 2개가 결합한 합용병서는 3개의 합용병서에서 온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떨어트릴 탁(汰)’도 역시 합용병서 ‘ㅂㅈ’이라면, ‘ㅈ’의 변음 ‘ㅌ’입니다.

8) 찹 증(蒸)

찌다<능엄경언해(1461)>¹⁵⁾, ‘ㅂㅈ’은 주로 ‘ㅌ’으로 변화되지만, ‘ㅈ’이 ‘ㅈ’으로 쉽게 변하는 원리에 따라 ‘찌다’가 됩니다. 또한 한자어도 동일한 음가 변음 규칙의 적용을 받아 ‘증(蒸)’이 된 것입니다.

9) 뛰어나다=초월(超越), 탁월(卓越)

10)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11)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12) 네이버 국어사전, <뜯다<뜯다<월인석보(1459)>, 글자체 가져옴.

13) 네이버 국어사전, [옛말] ‘떼3 [筏]’의 옛말, 글자체 가져옴.

14) 네이버 국어사전, 抖 떨틸 두 擻 들틸 수 떨틸 수, 출처 : 신증유합(1576) 하:9, 글자체 가져옴.

15)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超 뿌여날 토 출처 : 신증유합(1576) 하:516), 합용병서 ‘ㅂㅈ’에서 ‘ㅈ’의 변음 ‘ㅌ’이 옛 한자어이고, ‘토’의 변음이 현 한자어 ‘초’입니다.

10) 띄우다¹⁷⁾=발효(醱酵)

띄우다의 옛말은 ‘띄우다’입니다. 사동사를 형성하는 ‘우’는 원래 ‘후’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합용병서 ‘ㅂㅈ’에서 ‘ㅂ’의 ‘발’, ‘우/후’의 ‘효’가 됩니다.

11) 따르다=배행(陪行)

따르다의 옛말은 뽏오다¹⁸⁾입니다. ‘오’는 원래는 ‘호’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합용병서 ‘ㅂㅈ’에서 ‘ㅂ’의 ‘배’, ‘오/호’의 ‘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ㅂㅅ’을 보겠습니다. 현 우리말에 쌍자음 ㅃ로 나타납니다.

12) 씨=씨¹⁹⁾

ㅂㅈ, ㅂㅅ, ㅈ 까지 잘 나타난 단어입니다. 옛말은 ‘ㅂㅅ’이란 합용병서입니다. 또 하나의 옛말이 바로 ‘븨’²⁰⁾입니다. 현 우리말 ‘씨’와 ‘븨’를 일치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옛말의 합용병서 ‘ㅂㅅ’을 알고 있어야 하고, 종성 탈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합용병서 ‘ㅂㅅ’중 ‘ㅂ’은 초성에 남고 ‘ㅅ’이 종성으로 내려가는 특별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한자어는 ‘ㅂㅅ’중 ‘ㅅ’이 ‘ㅈ’으로 변음이 되어, ‘씨 종(種)’과 ‘씨앗 자(籽)’로 나타나게 됩니다. 영어는 거의 우리말 그대로 ‘씨드 seed’입니다.

다음으로 자음 하나 ‘ㅈ’입니다. 씨를 아주 특별히 ‘달’이라고도 하는데 심마니들의 은어로 ‘씨’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 심마니어 ‘달’은 ‘ㅂㅈ’의 ‘ㅈ’의 ‘달’입니다.

13) 쌀 미(米)

쌀의 옛말은 ‘쌀’입니다. ‘ㅂㅅ’중 ‘ㅂ’의 변음 ‘ㅁ’의 미(米)입니다. 심마니의 은어로 ‘모래미, 모새, 왕’이 있습니다. 역시 ‘ㅂㅅ’중 ‘ㅂ’의 변음 ‘ㅁ’이 ‘모래미’와 ‘모새’의 ‘모’가 된 것입니다. 아예 초성이 ‘ㅇ’으로까지 변한 것이 ‘왕’입니다.

14) 쏘다=발사(發射)

쏘다<분류두공부시언해(초간본)(1481)²¹⁾

16)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17) 네이버 국어사전, 「...을」 ‘뜨다(누룩이나 메주 따위가 발효하다)’의 사동사.

18)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19) 네이버 국어사전, [옛말] ‘씨1’의 옛말.

20)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21) 어원 : 쏘다<훈해>/소다<월석>/쏘다<분류두공부시언해(초간본)(1481)>,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함용병서입니다. ‘ㅂㅅ’ 중 ‘ㅂ’ 은 ‘발’, ‘ㅅ’은 ‘사’ 가 됩니다. 영어는 슈트 shoot입니다.

15) 물건을 싸다=포장(包裝)

싸다<석보상절(1447)>²²⁾, 석보상절에 우리 옛말로 ‘싸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ㅂㅅ’ 중 ‘ㅂ’ 의 변음 ‘ㅍ’ 의 ‘포’, ‘ㅂㅅ’ 중 ‘ㅅ’의 변음 ‘ㅈ’의 ‘장’ 이 됩니다.

16) 똥 싸다=배설(排泄)

싸다<구급간이방언해(1489)>²³⁾, 우리 옛말로 ‘싸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ㅂㅅ’ 중 ‘ㅂ’ 은 ‘배’, ‘ㅅ’은 ‘설’ 이 됩니다. 영어단어에서 오줌을 싸면 ‘ㅂ’의 피 pee, 똥을 싸면 ‘ㅅ’의 쉬트 shit입니다.

17) 소비하다의 쓰다 = 소비(消費)

쓰다²⁴⁾, ‘ㅂㅅ’ 중 ‘ㅂ’ 은 ‘비’, ‘ㅅ’은 ‘소’ 가 됩니다. 한자 성어는 교차되었지만, 교차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영어는 스펠드spend 입니다.

18) 사용하다의 쓰다=사용(使用)

쓰다²⁵⁾, ‘ㅂㅅ’ 중 ‘ㅅ’은 ‘사’이고, ‘ㅂ’ 은 ‘ㅇ’ 으로 변합니다. 영어는 ‘사용’ 이 교차되어 유스 use입니다.

19) 쭈=붕(蓬)

쭈<능엄경언해(1461)>²⁶⁾, ‘ㅂㅅ’ 중 ‘ㅂ’에서 ‘붕’ 이 됩니다.

다음은 ‘ㅂㅈ’입니다. 현 우리말에 쌍자음 ㅂㅂ 으로 나타납니다.

20) 짝 배(配)

짝<훈민정음(해례본)(1446)>²⁷⁾, ‘ㅂㅈ’에서 ‘ㅂ’의 배(配)입니다.

21) 소금이 짜다, 짬 함(鹹)

짜다<월인석보(1459)>²⁸⁾, ‘ㅂㅈ’에서 ‘ㅂ’의 변음 ‘ㅎ’ 의 함(鹹)입니다. 현 우리말은 함

22)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23)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24)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25)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26)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27)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28)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용병서 ‘ㅂㅈ’에서 쌍자음 ‘ㅃ’으로 변했습니다.

22) 만들다의 짜다, 짤 직(織)

짜다<월인석보(1459)> 29), ‘ㅂㅈ’에서 ‘ㅂ’은 우리말 명사형 ‘베’, 한자어는 포(布), 현 우리말은 합용병서 ‘ㅂㅈ’에서 쌍자음 ‘ㅃ’으로 변했고 한자어는 ‘짤 직(織)’입니다.

다음으로는 ‘ㅂㅌ’입니다.

23) 따다

‘따다’의 옛말은 3가지입니다. ‘뵤다, 쩌다, 뵤다’³⁰⁾, 이 단어에서 ‘ㅂㅌ’에서 ‘ㅂㅌ’으로 쉽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심지어 ‘ㅂㅌ’ 중 ‘ㅂ’이 ‘ㅅ’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ㅂㅌ, 뵤, ㅂㅌ, ㅂㅌ’를 살펴보았고, 다음으로는 ‘ㅅㄱ, ㅅㄴ, ㅅㄷ, ㅅㅂ’을 살펴보겠습니다. ‘ㅅㄱ’입니다.

24) 깔다

썰다³¹⁾, 썰자리³²⁾, 자리 좌석(座席), 자리 우리말에서 한자어 좌, 다음 한자어 ‘석’은 우리 옛말 ‘썰다’의 ‘ㅅㄱ’ 중 ‘ㅅ’이 한자어 초성이 되고, ‘ㄱ’은 종성이 된 것입니다.

25) 깔깔하다 고찰

깔깔하다의 함북 방언에 ‘석석하다’³³⁾가 있습니다. 현 우리말 ‘깔깔하다’로서 방언 ‘석석하다’를 추리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미 살펴본 대로 합용병서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깔깔하다의 옛말은 ‘끼깔ㅎ다’³⁴⁾입니다. 우리 옛말의 합용병서 ‘ㅅㄱ’을 통해서 ‘ㅅ’의 존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자어는 ‘깔깔할 색(濤)’인데, 역시 합용병서 ‘ㅅㄱ’ 중 ‘ㅅ’에 맞춘 한자어입니다.

26) 까다=삭감(削減)

썩다<번역노걸대(1517)>³⁵⁾, ‘ㅅㄱ’ 중 ‘ㅅ’이 한자어 ‘삭’이 되고, ‘ㄱ’은 한자어 ‘감’이 된 것입니다.

29)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30)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31)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32)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깔개(눅거나 앉을 곳에 까는 물건)’의 옛말.

33) 네이버 국어사전

34)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35)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27) 끼다=팔짱 낄 공(拱)

끼오다, 끼다, 끼다³⁶⁾, 3가지 옛말이 있습니다. 3개의 초성이 모인 합용병서 ‘ㅂㅅㄱ’에서 ‘ㅂ’이 빠지고 ‘ㅅㄱ’이 됩니다. 여기서 ㄱ에 맞춘 한자어 ‘공(拱)’입니다.

다음 ‘ㅅㄴ’입니다.

28) 사나이=남자(男子)

앞에서 잠시 언급했습니다. 우리말 ‘사나이’의 옛말은 ‘싸히, 스나히’³⁷⁾ 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말 초성 ‘ㅅㄴ’이 ‘ㅅ’ 과 ‘ㄴ’ 으로 분리됩니다. 그리고 ‘나히’는 한자어로 ‘남자(男子)’이고, 영어로는 ‘히’만 남아서 he 가 됩니다.

* 그래서 나무를 한자어로 ‘수목(樹木)’ 이라고 하는데, 우리말 ‘나무’ 앞에 ‘ㅅ’을 붙이고 종성에 ‘ㅎ’을 붙이면 ‘스나뭇’ 이니, 종성 ㅎ 은 ㄱ 으로 변하여 한자어로 ‘수목’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ㅅㄷ’입니다.

29) 터지다=탄(綻)

여기서는 ‘떠디다, 짜디다’³⁸⁾ 를 고찰해 보겠습니다. 합용병서 ‘ㅅㄷ’ 이 곧 ‘ㅂㅌ’ 과 서로 변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자어로는 ‘ㅂㅌ’ 의 ‘ㅌ’ 에 맞춘 ‘탄(綻)’이지만, ‘폭발(暴發, 爆發)’ 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ㅂㅌ’ 중 ‘ㅂ’의 변음 ‘폭’이 나오고 다음 우리말 ‘벌어지다’ 의 ‘발’이 나오게 됩니다.

30) 때다= 불 났 취(炊)

대히다/싸히다<다히다<구급방언해(1466)>³⁹⁾, 합용병서 ‘ㅅㄷ’에서 변음 ‘취’ 가 나오게 됩니다.

31) 땅 지(地)

쌍/쌍ㅎ<쌍<석보상절(1447)>⁴⁰⁾, 합용병서 ‘ㅅㄷ’에서 ‘ㅅ’ 과 ‘ㄷ’ 어느 곳에서나 ‘ㅈ’ 이 나오게 됩니다.

32) 떠들다

36)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37)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38)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39)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40)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썩들다⁴¹⁾, 撬起 썩드다 출처 : 한청문감(1770?) 7:45⁴²⁾, 撬는 ‘들어올릴 효/교’라고 새기는데 우리 옛말 합용병서 ‘ㅅㄷ’ 중 ‘ㅅ’의 변음 ‘ㅎ’으로 보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33) 떡과 시더귀

‘시더귀’는 평북 방언입니다. 방언만 그냥 들어서는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옛말이 ‘썩’⁴³⁾임을 알면 ‘ㅅㄷ’이 모두 풀어져 ‘시더귀’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합용병서 옛말이 풀어져 한자어가 되는 원리 그대로 우리말과 평북 방언 사이에 형성된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싸히, 스나히’⁴⁴⁾도 마찬가지입니다.

34) 떨리다=전율(戰慄)

떨리다⁴⁵⁾, 합용병서 ‘ㅅㄷ’의 ‘ㅅ’과 ‘ㄷ’ 어느 곳에서나 ‘ㅈ’이 나오니 ‘전’, ‘떨’의 종성 ㄷ은 ‘ㄹ/을’이 됩니다.

35) 뜸 둔

‘뜸’이란 우리말 뜻부터 알아야 합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나온 해석입니다. 쪼, 띠, 부들 따위로 거적처럼 엮어 만든 물건. 비, 바람, 별을 막는 데 쓴다. [비슷한 말] 초둔(草蓆). 이 뜸의 옛말이 ‘썰’⁴⁶⁾입니다. ‘ㅅㄷ’ 중 ‘ㄷ’에 맞춘 한자어 ‘둔(蓆)’입니다.

다음은 중요 단어들이 많이 들어 있는 ‘ㅅㅂ’입니다.

36) 뿜다=분출(噴出), 방출(放出)

뿜다⁴⁷⁾, 뿌리다와 비교해서 방향성이 아래서 위로입니다. ‘ㅅㅂ’에서 ‘ㅂ’이 한자어로 ‘분’이나 ‘방’, ‘ㅅ’ 부분이 ‘출’에 해당합니다. 영어로는 스프라우트 spout와 스퍼트 spurt입니다. 우리 옛말 ‘뿜다’가 그대로 늘어난 음가입니다. 우리말 명사형은 ‘뿜’이 되고 영어는 ‘스프링 spring’이 되는 것입니다.

37) 뿌리다=살포(撒布)

뿌리다⁴⁸⁾, 뿜다와 비교해서 방향성이 위에서 아래로 혹은 수평으로 나갈 경우입니다. 영어로는 스프레이 spray와 스프링클 sprinkle입니다. 우리 옛말 ‘뿌리다’에서 ‘ㅅㅂ’에서 ‘ㅅ’

41)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떠들다(가리거나 덮인 물건의 한 부분을 걷어 찢히거나 쳐들다)’의 옛말.

42)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43)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44)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45)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46)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47)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48)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의 ‘살’, ‘ㅂ’의 변음 ‘ㅍ’의 ‘포’가 됩니다. 한자어 ‘살포(撒布)’와 영어 ‘스프레이 spray’가 우리 옛말 ‘쓰리다’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8) 퍼다/펼치다 = 전(展)

원래 음가가 ‘ㅅ펼’이라 추정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말과 영어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ㅅㅂ/ㅅㅍ’에서 ‘ㅅ’의 변음 ‘ㅈ’의 한자어 ‘전(展)’, ‘ㅅ펼’을 풀어 발음하면 ‘스프레흐’, 다시 현 발음 ‘스프레드spread’가 됩니다.

39) 뺨=잔(拵)

‘뺨’의 옛말은 ‘뵐’입니다. 다시 ‘ㅅㅂ/ㅅㅍ’의 ‘뵐/뵐’⁴⁹⁾이 됩니다. 한자어는 ‘쥐어짤 잔(拵)’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말 ‘쥐어짜다’ 그대로 ‘잔’, ‘ㅅㅂ’에서 ‘ㅅ’의 변음 ‘ㅈ’의 ‘잔(拵)’입니다. 영어는 더 잘 대응되는 span[스팬]입니다.

40) 뺨=시/새(腮)

뺨⁵⁰⁾, 한자어는 ‘ㅅㅂ’에서 ‘ㅅ’의 ‘시/새’이고, 쌍자음이 되어 현 우리말 ‘뺨’이 된 것입니다.

41) 뽕=상(桑)

뽕<구급방언해(1466)>⁵¹⁾, ‘ㅅㅂ’에서 ‘ㅅ’의 ‘상’이고, 쌍자음이 되어 현 우리말 ‘뽕’이 된 것입니다. 이 단어는 특히 현 우리말 종성과 한자음 종성에서 ㅇ으로 같아집니다. 원래는 초성 ㅅㅂ 아래 종성 ㄹㅎ이 있었고, 종성에서 ㄹ 탈락 ㅎ, ㅎ의 변음 ㅇ이 됩니다.

42) 빠르다=속력(速力), 속도(速度)

쌔르다⁵²⁾, ‘ㅅㅂ’에서 ‘ㅅ’의 ‘속’이고, 쌍자음이 되어 현 우리말 ‘빠르다’가 됩니다. 강원, 경상, 전남, 충청의 방언 ‘싸게’⁵³⁾의 초성이 왜 ‘ㅅ’인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43) 빼다=발취(拔萃)

빠혀다, 빼혀다⁵⁴⁾, ‘ㅅㅂ’에서 ‘ㅂ’의 ‘발’이고, 쌍자음 ㅎㅎ에서 ‘취’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각자병서 ㅎㅎ이 옛말에 잘 나타난 단어입니다.

49)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50)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51)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52)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53) 네이버 국어사전

54)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44) 뽑다=선발(選拔)

썩다, 쏘다⁵⁵⁾, ‘ㅅㅂ’ 에서 ‘ㅅ’의 ‘선’ 이고, ‘ㅂ’ 의 ‘발’입니다.

45) 옷을 빨다=세척(洗滌), 세탁(洗濯)

씻다<석보상절(1447)>⁵⁶⁾, ‘ㅅㅂ’ 에서 ‘ㅅ’의 ‘세’입니다. 우리말 씻다의 옛말 ‘씻다’⁵⁷⁾와도 일치하는 한자어 ‘세(洗)’입니다.

* 위 자료들을 토대로 현재 쌍자음의 고어를 추리하고 한자어와 영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추정 1) 뻥다=신장(伸張)

현 네이버 사전에는 고어 표시가 없습니다. 쌍자음 ㅃ 의 고어가 ‘ㅅㅂ’ 이라면 ‘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어 영어 스트레치 stretch까지 추리할 수 있습니다.

추정 2) 빼앗다 / 빼들다/ 빼뜯다

현 네이버 사전에는 ‘빼앗다’의 고어 표시가 ‘앗다’ 라고 되어 있고 쌍자음 ㅃ의 정체를 알 수 없지만, ㅃ 이 ㅃㅅ/ㅅㅂ 이면, ㅅ의 수, 뜯의 탈, 수탈(收奪)이 나오고 ㅂ의 박, 뜯의 탈, 박탈(剝奪)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2개 초성을 가진 합용병서를 마치고 3개 초성을 가진 단어들을 보겠습니다. 현재 3개의 합용병서는 ‘ㅂㅅㄱ’ 과 ‘ㅂㅅㄷ’ 으로부터 남아 있는데 ‘ㅂㅅㄱ’을 먼저 보겠습니다. 앞에서 ‘꿀’은 언급했습니다.

1) 꺾질을 까다=부화(孵化)

썩다<뵈다<석보상절(1447)>⁵⁸⁾, 현 우리말 ‘까다’와 한자어 ‘부화’를 연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성 3개까지 올라가면 ‘ㅂㅅㄱ’에서 ‘ㅂ’의 ‘부’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끼니=곡식(穀食)

끼니<월인석보(1459)>⁵⁹⁾, 현 우리말 끼니는 3개의 초성을 지닌 ‘끼니’에서 왔습니다. 변화과정은 우리 옛말이 현 우리말에 이르러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끼니’ 에서 ‘ㅂ’의 탈락 ‘ㅅ기니’ 가 나오고 결국 쌍자음이 되어 ‘끼니’가 된 것입니다. ‘ㅂ’ 은 우리말 ‘밥/반’ 이고 한자어는 ‘반(飯)’ 입니다.⁶⁰⁾ ‘ㅅㄱ’에서 ‘ㄱ’은 ‘곡’, ‘ㅅ’은 ‘식’ 이 되는 것입니다.

55)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56)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57)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58)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59)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3) 꿔다=관(貫)

꽤다⁶¹⁾, 현 우리말과 한자어가 바로 대응되지만, 원래는 3개의 합용병서에서 출발한 단어입니다.

4) 꿔뚫다=관통(貫通)

꽤뚫다⁶²⁾, 역시 옛말에서 현 우리말과 한자어 관통(貫通)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 꾸다(빌리다), 빌릴 차(借)

꾸다<뿌다<불정심다라니경|관음경언해(1485)>⁶³⁾, ‘ㅂㅅㄱ’에서 ‘ㅂ’은 우리말 ‘빌리다’가 되고, ‘ㅅㄱ’에서 ‘ㅅ’의 변음 ‘ㅈ’의 한자어 ‘차’가 됩니다.

6) 끼다=팔짱 낄 공(拱)

끼오다, 빠다, 끼다⁶⁴⁾, 3가지 옛말이 있습니다. ‘ㅅㄱ’ 항목에서 했습니다. 역시 우리말 초성 ‘ㅂㅅㅈ’에서 ‘ㅂ’이 빠지고 ‘ㅅㄱ’이 됩니다.

이렇게 합용병서 2개는 3개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ㅂㅅㅈ’을 보겠습니다.

7) 찌르다

닿다, 빠르다, 디르다⁶⁵⁾, 역시 우리 합용병서가 잘 나타난 단어입니다. 옛말 중 ‘ㅂㅅㅈ’에서 ‘ㅂ’ 탈락 후 ‘ㅅㅈ’이 되고, 다음 ‘ㅅㅈ’이 변음 되어 쌍자음 ㅈ이 되거나, 아예 ‘ㅅ’도 생략되어 ‘닿다 와 디르다’도 됩니다. 역시 3개의 합용병서, 다음 2개의 합용병서, 그 후 한 개의 자음으로 남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8) 깨뜨리다

빻리다⁶⁶⁾, 이 단어는 특별히 3개의 합용병서가 현재 우리말과 대응이 안되는 경우인데, 굳

60) 밥/반=반(飯), 찬=찬(饌), 국/갱=갱(羹), 수저=시저(匙箸), 편(떡 다른말)=병(餅), 지짐, 저냐=전(煎)
달이다와 졸이다 는 모두 현 우리말입니다. 달이다, 졸이다, 지짐, 저냐----->전(煎), 우리말과 한자어가 너무
같다보니 전(煎)에서 저냐가 나왔다는 잘못된 학설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61)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62)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63)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64)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65)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66)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이 연결성을 찾아보자면, 깨뜨리다 의 ‘뜨’ 에 ‘ㅂㅅㄷ’의 ‘ㄷ’ 이 조금 남아 있다고 봅니다.

5. 2개 병서로 3개의 병서 초성 최대 수 도출

2개의 초성에 ㅂㄷ, ㅃ, ㅂㅅ, ㅂㅌ/ ㅅㄱ, ㅅㄴ, ㅅㄷ, ㅅㅂ이 있고 3개로 ㅃㄱ, ㅃㄷ 이 있습니다. ㅃㄱ, ㅃㄷ 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ㅂ’ 생략 후 ‘ㅅㄱ 과 ㅅㄷ’ 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ㅅㄴ 과 ㅅㅂ도 원래는 ‘ㅂ’ 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3개의 합용병서 ㅃㄱ, ㅃㄷ외에 ‘ㅂㅅㄴ 과 ㅂㅅㅂ’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부분이 ‘ㅂㅅ-’ 으로 구성된 3개의 합용병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다른 합용병서 ‘ㅂ-’ 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개의 합용병서 ‘ㅂㅅ’ 에서 3개의 합용병서 ‘ㅃㄱ, ㅃㄴ, ㅃㄷ, ㅃㅂ’ 이 되듯 이제 ‘ㅂㄷ, ㅂㅅ, ㅂㅌ’ 에 하나의 자음을 붙여봅니다.

ㅂㄷ 은 ㅂㄷㄱ, ㅂㄷㄴ, ㅂㄷㄷ, ㅂㄷㅂ

ㅂㅅ 은 ㅂㅅㄱ, ㅂㅅㄴ, ㅂㅅㄷ, ㅂㅅㅂ

ㅂㅌ 은 ㅂㅌㄱ, ㅂㅌㄴ, ㅂㅌㄷ, ㅂㅌㅂ

위와 같은 3개의 합용병서 소리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3음들이 사라지고 조선 시대 남은 3개의 합용병서가 ㅃㄱ 과 ㅃㄷ 입니다.

6. 우리말과 한자어의 분리 고찰

지금까지 연구로 우리말 안의 합용병서 2개는 3개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말과 한자어 사이에도 이런 규칙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말과 한자어의 동일 언어 DNA 는 증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음가는 어떻게 증명하는가가 문제였는데 처음에는 변음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합용병서라는 어원의 근원이 있으니 이를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한국어와 한자어(고대 중국어)사이의 음가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중요도 순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1) ㅁ에서 ㅅ 으로⁶⁷⁾

1-1. 물---> 수(水)

1-2. 뫼---> 산(山)

1-3. 몸---> 신(身)

1-4. 마음---> 심(心)

1-5. 마늘---> 산(蒜)

1-6. 머리---> 수(首)

1-7. 모래---->사(沙)

67) 보충본의 41) 번입니다. 이전 해석: 최고 난이도 변음 중의 하나입니다. ㅁ 이 사라지면서 ㅇ 이 되는데, 다시 음이 ㅎ 으로 살아올라 온 후 ㅎ 이 ㅅ 으로 변합니다.

1-8. 못----> 소(沼)

1-9. 믿다--->신(信)

이전 제 연구는 합용병서 연구 없이 변음 관계로 한국어와 한자어를 비교했던 것입니다. 68)우리말 초성 앞에 ‘ㅅ’을 붙일 수 있으니, 우리말 ‘물, 뿔, 몸, 마음, 마늘, 머리, 모래, 못’의 원래 음가는 ‘ㅅ물, ㅅ뿔, ㅅ몸, ㅅ마음, ㅅ마늘, ㅅ머리, ㅅ모래, ㅅ못, ㅅ믿다’입니다. 여기서 ‘ㅅ口’ 중 ‘ㅅ’은 ‘수(水), 산(山), 신(身), 심(心), 산(蒜), 수(首), 사(沙), 소(沼), 신(信)’가 됩니다.

2) ㅂ에서 ㅅ 으로69)

2-1. 별----->평/형----->성(星)

2-2. 비리다--->평/형--->성(鯉)

2-3. 뱀----->파/하----->사(蛇)

2-4. 보다--->피/히----->시(視), 살펴보다

2-5. 빠르다-->폭/혹----->속(速)70)

2-6. 받다----->푸/후----->수(受)

2-7. 버들치--->푸/후--->수

2-8. 부채----->푸/후--->선(扇)

2-9. 베껴 쓰다--->파/하--->사(寫)

2-10. 뽕나무----->광/항----->상(桑)

2-11. 비로소/바야흐로--->피/히-->시(始)

2-12. 부럽다----->편/현----->선(羨)

2-13. 흙 빚다--->포/호--->소(塑)

2-14. 배----->편/현----->선(船)71)

2-15. 번쩍일----->펼/험----->섬(閃)

합용병서의 이치를 적용하면, ‘ㅂ ㅅ/ㅅ ㅂ’에서 분리 되어 우리말은 ‘ㅂ’ 으로 한자어는 ‘ㅅ’ 초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2-16. 바--->소(所)

바는 그대로 방법(方法), ‘ㅂ ㅅ’ 에서 ‘ㅅ’ 의 ‘소’, 우리말 뜻이 곳일 경우 ‘ㅅ곳’에서 ‘ㅅ’ 의 ‘소’입니다.

3) ㄷ에서 ㅅ으로72)

68) 다음에 제시할 ‘한국대동어문 보충본’ 을 말합니다.

69) 보충본의 6) 번입니다. ㅂ ---> 표/ㅎ-----> ㅅ

70) 우리말 안에서의 변화 표현으로는 ‘싱싱, 싸게 싸게’가 있습니다.

71) 우리말 안에서의 변화 표현으로는 ‘마생이(목선)’가 있습니다.

72) 보충본의 46) 번입니다.

- 3-1. 닭을-----> 수(修)
- 3-2. 드디어-----> 수(遂)
- 3-3. 뛰어날-----> 수(殊)
- 3-4. 따를-----> 수(隨)
- 3-5. 드리울-----> 수(垂)

역시 우리말 초성 ‘ㄷ’ 앞에 ‘ㅅ’ 을 붙일 수 있으니, ‘ㅅ닭다, ㅅ드디어, ㅅ뛰어나다, ㅅ따르다, ㅅ드리우다’ 가 됩니다. 한자어로는 ‘수’ 음가로 나타납니다.

4) 표에서 ㅅ으로⁷³⁾

4-1. 파리 승(蠅)

역시 우리말 초성 ‘표’ 앞에 ‘ㅅ’ 을 붙일 수 있으니, ‘ㅅ파리’ 가 됩니다. 한자어로는 ‘ㅅ표’ 중 ‘ㅅ’ 의 ‘승’ 음가로 나타납니다.

5) 테에서 ㅅ으로⁷⁴⁾

5-1. 탈 승(乘)

우리말 초성 ‘테’ 앞에 ‘ㅅ’ 을 붙일 수 있으니, ‘ㅅ타다’ 가 됩니다. 한자어로는 ‘ㅅ테’ 중 ‘ㅅ’ 의 ‘승’ 음가로 나타납니다.

6) ㄴ에서 ㅅ 으로⁷⁵⁾

6-1. 나물----->소(蔬)

6-2. 눈 ----->설(雪)

우리말 초성 ‘ㄴ’ 앞에 ‘ㅅ’ 을 붙일 수 있으니, ‘ㅅ나물, ㅅ눈’ 가 됩니다. 한자어로는 ‘ㅅㄴ’ 중 ‘ㅅ’ 의 ‘소와 설’ 로 나타납니다. 특히 추정 함용병서 ‘ㅅ눈’ 은 바로 영어 ‘스노우 snow’ 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말 앞에 ‘ㅅ’을 붙이면, 한자어 ‘ㅅ’ 초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가장 어

73) 보충본의 37) 번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중간에 ㅎ을 넣어 주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파리/폴 --->ㅎ--->승

74) 보충본의 36) 번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중간에 ㅎ을 넣어 주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탈----->ㅎ---> 승(乘)

75) 보충본의 31) 번입니다. ㄴ에서 ㅅ 으로 가는 변음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ㄴ에서 ㅇ 으로 가고 다시 ㅎ 으로 발음이 살아나 ㅅ 으로 변음되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물--->오/호----->소(蔬)

눈 ----->얼/헐--->설(雪)

려운 경로인 ㄴ에서 ㄱ을 보겠습니다.

7) ㄴ에서 ㄱ 으로⁷⁶⁾

7-1. 나라----> 꺾/국(國)

7-2. 노래----> 가(歌)

7-3. 내릴----> 강(降)

7-4. 높을 ----->고(高)

즉 우리말 초성 ‘ㄴ’ 안에는 ‘ㄱ’ 이 들어 있습니다. ‘ㄴ가라, ㄴ고래, ㄴ개리다, ㄴ끓다’에서 우리말 ‘ㄴ’ 이 탈락한 후 한자어 ‘ㄱ’ 이 된 것입니다. 이 과정도 합용병서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8) ㄴ에서 ㄷ 으로⁷⁷⁾

8-1. 내기, 노름----> 도(賭)

ㄴ, ㄷ, ㅌ 훈민정음의 설음입니다. 설음들 사이에서는 서로 자주 교차 변음을 합니다. 또 하나는 합용병서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ㄴ’ 다음에 ‘ㄷ’을 붙이는 것입니다. ‘ㄴ대기, ㄴ노름’에서 ㄷ 의 한자음 ‘도’입니다. 둘 중 어느 것이나 우리말에서 한자어로 변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원리입니다.

9) ㄴ 에서 ㅈ 으로⁷⁸⁾

9-1. 낮 --> 두---> 주(晝)

9-2. 낮을 ---> 더---> 저(低)

위와 같이 ㄴ-->ㄷ-->ㅈ 변음 관계로 보아도 좋고, ㄴ 다음 ㅈ 이 붙어 있는 ㄴㅈ에서 나온 한자어 ‘주 와 저’ 로 보아도 됩니다. 물론 ㄴㅈ/ ㅈㄴ에서 ㅈ 의 변음 ㅈ 으로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76) 보충본의 33) 번입니다. 이전 해석: 가장 어려운 변음 과정이지만, ㄴ에서 ㅎ 으로 가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면, ㅎ에서 ㄱ 으로 가는 것은 일반적인 변음 과정입니다.

나라---> 워--->획--->꺾/국(國)

노래---->아--->하---> 가(歌)

내릴---->앙--->항---> 강(降)

77) 보충본의 29) 번입니다.

78) 보충본의 30) 번입니다. 해석내용: 이 변음의 길은 ㄴ 에서 ㄷ, 다시 ㅈ 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ㄴ 에서 ㄷ 으로의 변음 길은 ㄴ, ㄷ, ㅌ 훈민정음의 설음 사이의 교차 변음이고, ㄷ에서 ㅈ은 일상적인 변음 경로입니다.

10) ㅂ에서 ㅎ 으로⁷⁹⁾

- 10-1. 바다--->해(海)
- 10-2. 반디--->형(螢)
- 10-3. 불----->화(火)
- 10-4. 불----->후(煦)
- 10-5. 벼----->화(禾)
- 10-6. 벼----->학(格)
- 10-7. 범----->호(虎)

우리말과 한자어, 우리말과 일국어(日國語)의 기본적인 변음 대응입니다. 여기서는 합용병서 원리라면 ㅂ 다음에 ㅎ 이 붙은 ‘ㅂㅎ’에서 분리 되었다는 원리도 적용 가능하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에서 ㄱㅎ, ㄴㅎ, ㄷㅎ, ㄹㅎ, ㅁㅎ, ㅂㅎ, ㅅㅎ, ㅇㅎ, ㅈㅎ, ㅊㅎ, ㅋㅎ, ㅌㅎ, ㅍㅎ 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 ㅎ 음가에 맞추어 한자어 초성 ㅎ 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11) ㄷ--->ㅂ

11-1. 다시 부(復)

3개의 합용병서 ‘ㅂㅅㄷ’ 에서 ‘ㅂ’ 은 한자어 ‘부’, ‘ㄷ’ 은 다시 라는 우리말이 됩니다. 거듭의 의미일 경우는 “ㅂㅅㅅ” 에서 ‘ㅂ’ 은 한자어 ‘부’, ‘ㅅ’ 은 거듭 이라는 우리말이 됩니다.

12) ㅂ에서 ㅈ 으로

ㅂ ---> ㅈ ----> ㅊ⁸⁰⁾

- 12-1. 봄----->봄----->춘(春)⁸¹⁾
- 12-2. 바쁘다--->퐁-->충(匆)
- 12-3. 벌레--->퐁--->충(蟲)
- 12-4. 베게--->뽕--->침(枕)
- 12-5. 병아리(비육)--->푸--->추(雛)
- 12-6. 빌다----->푹----->축(祝)
- 12-7. 버금----->파----->차(次)
- 12-8. 볶다----->편----->초(炒)
- 12-9. 부끄럽다---->피--->치(恥)

79) 보충본의 1) 번의 일부분입니다.

80) 보충본의 6) 번입니다. ㅂ 이 ㅈ을 거쳐 혹은 그대로 변음 되어 ㅈ,ㅊ,ㅅ 이 됩니다.

81) 봄에서 춘으로 가는 경로는 최고 난이도 경로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이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말에서 한자어로 가는 어려운 변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봄의 ㅂ 이 ㅈ 으로, 다시 ㅈ에서 ㅈ 으로 가는 경로를 깨달아야한다.

- 12-10. 부르다----->팡----->창(唱)
 12-11. 비(자루)----->푸--->추(帚)
 12-12. 붓다/부풀다--->팡--->창(脹)
 12-13. 비비다----->파----->차(搓)
 12-14. 비롯하다--->팡--->창(創)
 12-15. 빚/빚----->패--->채(債)

합용병서 ‘ㅂㅅ/ㅅㅂ’에서 ‘ㅅ’의 변음 ‘ㅈ’으로 새겨도 되고, 처음부터 ‘ㅂㅈ’에서 나온 한자어 초성 ‘ㅈ’이라고 보아도 됩니다.

13) ㅂ에서 ㅈ으로

ㅂ ---> 표 -----> ㅈ⁸²⁾

- 13-1. 발----->폭----->족(足)
 13-2. 밭----->편----->전(田)
 13-3. 빗----->플----->줄(櫛)
 13-4. 바탕-->필/힐--->질(質)
 13-5. 번개--->편--->던-->전(電)
 13-6. 빨간--->떡--->적(赤)
 13-7. 벼룩-->포----->조(蚤)
 13-8. 베다-->푸--->주(誅), 참(斬)
 13-9. 붓다----->푸--->주(注)
 13-10. 비녀--->팜--->잠(簪)

합용병서 ‘ㅂㅅ/ㅅㅂ’에서 ‘ㅅ’의 변음 ‘ㅈ’으로 새겨도 되고, 처음부터 ‘ㅂㅈ’에서 나온 한자어 초성 ‘ㅈ’이라고 보아도 됩니다.

14) 우리말 모든 초성과 한자어 ㅂ 음가의 관계 : 부의 경우

14-1. 가마 부(釜), 갈대청 부(苧), 그물 부(罾)

‘ㅂㄱ’에서 ‘ㅂ’은 한자어 ‘부’, ‘ㄱ’은 우리말 초성입니다. 앞에서 공부한 합용병서를 고려하자면, 3개의 초성 ‘ㅂㅅㄱ’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14-2. 도울 부(扶), 다다를 부(赴), 도끼 부(斧), 단지 부(甌)

‘ㅂㄷ’에서 ‘ㅂ’은 한자어 ‘부’, ‘ㄷ’은 우리말 초성입니다. 앞에서 공부한 합용병서를 고려하자면, 3개의 초성 ‘ㅂㅅㄷ’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14-3. 썩을 부(腐), 스승 부(傅), 살갓 부(膚), 사로잡을 부(俘), 산뜻할 부(紆), 성낼 부(懷)

82) 보충본의 6) 번입니다. 따로 번호를 부여 하였습니다.

‘ㅂㅅ/ㅅㅂ’에서 ‘ㅂ’은 한자어 ‘부’, ‘ㅅ’은 우리말 초성입니다. ‘살갓 부(膚)’의 경우 3개의 초성 ‘ㅂㅅㄱ’이 잘 나타납니다. ‘ㅂ’은 ‘부’, ‘ㅅㄱ’은 ‘살갓’입니다.

14-4. 질 부(負), 줄 부(付), 쪼갬 부(剖), 장군(질그릇) 부(缶)

‘ㅂㅈ’에서 ‘ㅂ’은 한자어 ‘부’, ‘ㅈ’은 우리말 초성입니다.

15) 우리말 모든 초성과 한자어 ㅂ 음가의 관계 : 배의 경우

15-1. 곱 배(倍), 구슬 배(環), 구슬궤미 배(琲), 꽃봉오리 배(蓓)

‘ㅂㄱ’에서 ‘ㅂ’은 한자어 ‘배’, ‘ㄱ’은 우리말 초성입니다. 앞에서 공부한 합용병서를 고려하자면, 3개의 초성 ‘ㅂㅅㄱ’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15-2. 달아날 배(北), 등 배(背)

‘ㅂㄷ’에서 ‘ㅂ’은 한자어 ‘배’, ‘ㄷ’은 우리말 초성입니다. 앞에서 공부한 합용병서를 고려하자면, 3개의 초성 ‘ㅂㅅㄷ’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15-3. 속적삼 배(褙)

‘ㅂㅅ’에서 ‘ㅂ’은 한자어 ‘배’, ‘ㅅ’은 우리말 초성입니다.

15-4. 절 배(拜)

‘ㅂㅈ’에서 ‘ㅂ’은 한자어 ‘배’, ‘ㅈ’은 우리말 초성입니다.

16) 우리말 모든 초성과 한자어 ㅂ 음가의 관계 : 보의 경우

16-1. 갚을 보(報), 걸음 보(步), 기울 보(補)

‘ㅂㄱ’에서 ‘ㅂ’은 한자어 ‘보’, ‘ㄱ’은 우리말 초성입니다. 앞에서 공부한 합용병서를 고려하자면, 3개의 초성 ‘ㅂㅅㄱ’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16-2. 넓을 보(普), 능에 보(鵲)

‘ㅂㄴ’에서 ‘ㅂ’은 한자어 ‘보’, ‘ㄴ’은 우리말 초성입니다. 앞에서 공부한 합용병서를 고려하자면, 3개의 초성 ‘ㅂㅅㄴ’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16-3. 도울 보(輔), 더부룩할 보(葆)

‘ㅂㅈ’에서 ‘ㅂ’은 한자어 ‘보’, ‘ㅈ’은 우리말 초성입니다. 앞에서 공부한 합용병서를 고려하자면, 3개의 초성 ‘ㅂㅅㅈ’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16-4 지킬 보(保)

‘ㅂㅈ’에서 ‘ㅂ’은 한자어 ‘보’, ‘ㅈ’은 우리말 초성입니다.

16-5 클 보(甫)

‘ㅂㅋ’에서 ‘ㅂ’은 한자어 ‘보’, ‘ㅋ’은 우리말 초성입니다. 앞에서 공부한 합용병서를 고려하자면, 3개의 초성 ‘ㅂㅅㅋ’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ㅂㅅㄱ’의 ‘ㄱ’의 변음 ‘ㅋ’으로 보아도 됩니다.

17) 우리말 모든 초성과 한자어 ㅂ 음가의 관계 : 비의 경우

17-1. 견줄 비(比), 끓을 비(沸), 고단할 비(憊)

‘ㅂㄱ’에서 ‘ㅂ’은 한자어 ‘비’, ‘ㄱ’은 우리말 초성입니다. 앞에서 공부한 합용병서를 고려하자면, 3개의 초성 ‘ㅂㅅㄱ’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17-2. 날 비(飛), 낮을 비(卑)

‘ㅂㄴ’에서 ‘ㅂ’은 한자어 ‘비’, ‘ㄴ’은 우리말 초성입니다. 앞에서 공부한 합용병서를 고려하자면, 3개의 초성 ‘ㅂㅅㄴ’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17-3. 도울 비(裨), 더러울 비(鄙), 덮을 비(庇)

‘ㅂㅈ’에서 ‘ㅂ’은 한자어 ‘비’, ‘ㅈ’은 우리말 초성입니다. 앞에서 공부한 합용병서를 고려하자면, 3개의 초성 ‘ㅂㅅㅈ’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17-4. 슬플 비(悲), 숨길 비(秘), 살찔 비(肥), 삼갈 비(慄), 사립문 비(扉)

‘ㅂㅅ/ㅅㅂ’에서 ‘ㅂ’은 한자어 ‘비’, ‘ㅅ’은 우리말 초성입니다.

17-5. 지라 비(脾), 저릴 비(痺)

‘ㅂㅈ’에서 ‘ㅂ’은 한자어 ‘비’, ‘ㅈ’은 우리말 초성입니다.

17-6. 코 비(鼻), 클 비(丕)

‘ㅂㅋ’에서 ‘ㅂ’은 한자어 ‘비’, ‘ㅋ’은 우리말 초성입니다. 앞에서 공부한 합용병서를 고

려하자면, 3개의 초성 ‘ㅂㅅㅋ’ 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ㅂㅅㄱ’의 ‘ㄱ’의 변음 ‘ㅋ’으로 보아도 됩니다.

17-7. 헐뜯을 비(誹)

‘ㅂㅎ’에서 ‘ㅂ’은 한자어 ‘비’, ‘ㅎ’은 우리말 초성입니다. ㅎ과 ㅂ, ㅂ과 ㅎ은 서로 교차하면서 쉽게 변하는 우리말과 외국어의 관계입니다.

7. 우리말과 한자어에서 합용병서의 역할 고찰

위에 든 내용처럼 우리말과 한자어 사이에는 그 근원에 합용병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단어들을 이 글에서 열거할 수는 없고 위에 제시된 단어로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위 예시에 종성이 붙은 한자어는 열거해 드리지 않았지만 모두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말과 한자어 사이에는 같은 초성 음가가 상당 수 있고, 다음으로 초성에서 차이나는 음가는 합용병서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앞에서 몇 개의 예를 들었듯이 영어로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8. 결론적인 고대 원 음가

지금까지 우리말과 한자어를 기본으로 언어의 원류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초성이 3개-대표적으로 옛말에 남은 ‘ㅃㅅㅈ’인데 최대수는 계속 늘어 날 수 있습니다. -붙을 수 있고, 종성에는 ‘ㄹㅎ’이 기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로 ‘꿀’의 경우는 ‘뿔’⁸³⁾인데, 종성의 ‘ㄹ’은 원래 ‘ㄹㅎ’이었다고 봅니다. 또한 ‘뿔’의 경우도 종성이 원래는 ‘ㄹㅎ’⁸⁴⁾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초성 3개와 종성 2개, 중간의 종성모음 1개, 총 6개에서 한자어와 전 세계어가 파생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순 문제가 해결 안되는데, 이는 환국(한반도, 만주, 서남해가 초원이던 한중일이 붙어 있던 시절)이란 고대의 우리 지역에서 단어의 형태로 나타나 인류가 분리되면서 -자연 재해, 특히 해빙기에 바닷물 유입-각 지역에 맞춘 어순 분리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다음 장은 이미 발표된 제 논저이지만, 편의를 위해 이곳에 다시 첨부합니다.

83)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84) ‘ㄹㅎ’에 대해서는 다음 ‘한국대동어문 보충본’에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하늘아래 최고의 공부>>

한국대동어문 보충본

저자: 허대동

일러두기

1. ‘한국대동어문’ 발표 이후 중요 연구의 보충본입니다.
2. 절대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논문 및 기타 저서에 제 이름이 들어간 법적 표준 인용, 참조 등은 가능합니다.

한국대동어문 보충본

1. ㅎ 의 존재

제가 이미 훈민정음 한자어 종성 표식에 ㅇ 이 있는 것은 우리 하늘 말 표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증거를 우리말에서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 증거 자료의 출발점은 우리말 ‘종성 ㄹㅎ/ㅎ’ 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네이버 국어사전 검색창에 ‘ㅎ 휴지(休止)’를 넣게 되면, 중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하냥, 바랏, ㅅ당, 깊, 송, 냉, 들, 움, 움, 앓, 텅,가움, 겨움, 고움, 마움, 응(위), 텅, 낱, 꿩, 장, 맑, 깊, 낱, 돛, 구들, 모뎡⁸⁵⁾

다음 동사류와 서술형용사를 통해서도 ㅎ 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낱다, 낱다, 놓다 , 샅다/썰다 , 뺨다, 꿰이다, 앓다, 꿰다 , 찡다 , 질다, 꿰다, 앓다(안하다), 잃다, 뚫다, 꿰다, 땡다/닿다, 닿다, 닿다, 배호다(배우다), 동다, 싫다, 많다

위 단어들을 보면, 우리말의 핵심 기초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종성 ㄹㅎ/ㅎ’ 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 단어들을 세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특이하게 가장 기본적인 단어 ‘하늘’ ‘바다’ ‘땅’에 모두 ㅎ 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 1) 하늘 -----> 하늘, 하늬⁸⁶⁾
- 2) 땅-----> 썰
- 3) 바다-----> 바랏, 방, 바당, 바를

모두 종성에 ㅎ 이 붙어 있습니다.

- 4) 터----->텅
- 5) 뜰(정원)----->뜰
- 6) 들/들판-----> 드룽
- 7) 들이나 별판----->뎡
- 8) 동산----->위얏
- 9) 길----->깊

85) 편의상 현대적 표현으로 단어를 적었습니다.

86) 옛 한글 표기는 네이버 사전에서 가져왔다. 특별한 표식이 없는 한 옛 한글 출처는 ‘네이버 국어사전’ 이다. 한글 안에 없는 글자체는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에서 모두 가져왔다.

우리 집의 안뜰과 바깥 들판 모두에 종성 ㅎ 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흙의 옛말은 ‘흙’이고, 방언은 ‘합, 허럭, 혹, 흘, 흐룩’이니, 위 내용들에 비추어 첫 발음을 추리해 보면 ‘흙’ 이었다고 누구나 추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ㅎ 은 쉽게 ㄱ 으로 변하니 더욱 그러합니다.

* 흙(추정 단어)--->흙

10) 도랑---> 돌, 둥

11) 내----->냉

물이 흘러가는 길입니다. 내에도 도랑에도, 그리고 바다에도 ㅎ 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말 ‘가람’ 의 출처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람’ 부분을 ‘랑’ 으로 만들면 모든 원칙에 맞게 됩니다.

* 값/ 가랑(추정 단어)-----> 가람

12) 뫼(산)----> 뫼

13) 숲-----> 숯, 습

14) 나물----->늑물

15) 뿌리---->불취

16) 그루터기--->그룻

뫼, 숲, 나물에도 ㅎ 이 분명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원래는 ‘냥’ 이었다고 봅니다. 그 흔적을 옛말과 방언에서 찾아 보겠습니다. 나무의 옛말은 ‘나모, 냇’이고, 방언으로는 ‘냥, 냇구, 냇이, 냇구, 냇괴, 냇기, 무투, 냇그, 냇게, 냇개’⁸⁷⁾가 있습니다. 옛말과 방언을 고찰하면, ‘냇’이 늘어져 ‘냇구, 냇괴, 냇그’ 가 되고 종성 ㅁ 이 ㅇ 으로 변하여 ‘냇구’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검토 했듯이 종성 ㅇ 은 ㅎ에서 왔습니다. 이런 검토를 통해 우리 첫 어원은 ‘냥’ 이었다고 보고, 이는 ‘높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중 평안 방언 ‘무투’가 특별한데, 나모의 ‘모’ 가 ‘무투’로 변했습니다. 이 변음은 현재 ‘심마니어’로 ‘무투’로 남아 있기도 한데, 이를 통해 우리말은 초원 지역에서 산악지역으로, 남한에서 북한으로 진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냇(추정 단어)--->냥, 나모

우리의 마을과 고을도 보겠습니다.

17) 마을-----> 마쉴

18) 고을-----> 고을, 고을, ㄱ을

우리의 고을과 마을에도 종성에 ㅎ 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계절을 보겠습니다.

87) 네이버 국어사전

- 19) 가을----->ㄱ숯
- 20) 겨울----->겨슬, 겨슐
- 21) 올해----->올
- 22) 나이----->낱
- 23) 그늘----->ㄱ늪
- 24) 저녁--->나죵
- 25) 장마--->맏

계절에도 종성에 ㅎ 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봄, 여름의 ㅁ 도 ㅎ 변음이라고 추리할 수 있습니다.

돌과 바위는 어떨까요?

- 26) 돌----->돌
- 27) 바위----->바회

바회의 회도 돌의 ㅎ 종성처럼 고대 한국어 표식이라고 봅니다.

신체 부위에는 어떤 단어에 표식을 해 두었을까요?

- 28) 코----->꽁
- 29) 팔-----> 불, 폴
- 30) 이마----->니맏
- 31) 꼭뒤----->꼭똥
- 32) 살----->샷ㅎ
- 33) 배알----->빅숯

신체 부위에는 ㅎ이 비교적 적게 남아 있지만, 모두 ㅎ 이 붙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람이 만든 물건에도 표식을 해 두었을 것입니다.

- 34) 칼----->깡
- 35) 자----->장
- 36) 움/움집--->움ㅎ
- 37) 바퀴----->바회
- 38) 종이----->죠히
- 39) 말뚝----->맏
- 40) 날/칼날-----> 늪
- 41) 날(실, 새끼, 노끈)-----> 늪
- 42) 끈----->깁

- 43) 구들----->구둑
- 44) 울타리-----> 울
- 45) 썰/웃썰----->썰
- 46) 어량(물고기 잡는 도구)----->둑
- 47) 거꾸집----->송

곡식류에는 ‘밀과 메밀’ 이 있고, 먹거리로 ‘마’가 있습니다.

- 48) 밀/메밀----->밭/모밭
- 49) 마----->망

더 명확한 증거로 숫자를 들어 보겠습니다.

- 50) 둘----->둑⁸⁸⁾
- 51) 셋----->쌩
- 52) 넷----->넙
- 53) 열----->열

다른 숫자들은 어떤지 위 자료를 토대로 추리해 보겠습니다.

- 둑----->두나 (방언)
- 쌩----->세나 (방언)
- 넙----->네나 (방언)

현 ‘하나’의 옛말은 ‘한’ , 그 이전 음가는 ‘황’ 으로 추리 할 수 있습니다. ‘ㄱ’ 음가도 나오기 전이니 더 정확하게는 '훈'입니다. 한, 할, 항, 훈, 흠, 훈, 황, 훈 등으로 파생되는 소리입니다.

* 훈/황--->한--->하나

다섯부터 아홉까지도 추리해 보겠습니다.

- * 다섯----->다승(옛말 표기는 없지만 추리)
- * 여섯----->여승(옛말 표기는 없지만 추리)

ㅎ 이 ㅅ 이 변음하는 경우입니다.

- * 일곱----->닐곱(옛말 표기는 없지만 추리)
- * 여덟----->여덥----->여둑(옛말 표기는 없지만 추리)
- * 아홉----->아훈(옛말 표기는 없지만 추리)

88)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10652400>

ㅎ 이 ㅂ 으로 변하는 관계는 ㅎ-->ㅍ-->ㅂ 인데, 송--->습-->쑈 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ㅎ-->ㅍ-->ㅂ 대신 ㅎ-->ㅂ-->ㅍ 도 가능하고 역으로도 가능합니다.

앞뒤, 위아래도 살펴보겠습니다.

54) 위---->마디, 웅

55) 뒤--->뿔

사람이 대상인 경우도 2개 있습니다.

56) 아내---->안해

57) 임자---->님장

가축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58) 개---->가히

59) 오리---->올히

그러면 소는 송/소히, 말은 많/말히, 돼지(돌)는 똥, 닭은 닭 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쇠에’⁸⁹⁾란 방언이 있는데, ‘-에’가 ‘-히’의 변음이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알’을 보겠습니다.

60) 알----->알

더 마지막으로 ‘나랏’을 보겠습니다.

61) 나라---->나랏⁹⁰⁾

나라라는 개념이 생긴 후, 러시아 인도 독일 영국 지역으로 뻗어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 제시된 자료를 보건데 우리말에는 모두 ㅎ 이 붙은 단어들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외 흔히 꼭지 ㅇ 이라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89) 네이버 국어사전, [방언]‘소(숫과의 포유류)’의 방언(경남).

90) 네이버 국어사전, 독어는 ‘나찌온’, 영어는 ‘네이션’, 힌두어는 ‘라스트라’ 로 남아 있지만, 러시아어는 народ [나로토/나로도] 로 더 정확히 남아 있습니다. 네이버 러시아사전 과 구글 사전 참조.

콩, 썰, 부형⁹¹⁾

우리말 중 ‘ㄹㄱ’ 으로 종성이 끝나는 단어도 원래는 ‘ㄹㅎ’ 이었다고 봅니다.

닭, 철, 맑다, 물다, 밝다 등.

다음에는 ㅎ 이 어떻게 변음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2. ㅎ 의 변음

ㅎ 은 변음되어 ㅌ, ㅋ, ㄱ, ㅅ, ㅈ, ㅊ, ㅇ, ㅍ, ㅂ 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중 먼저 ㅎ에서 ㅇ 으로 가는 우리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초성 ㅎ에서 ㅇ 으로 가는 단어는 ‘부형’⁹²⁾ 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현 우리말은 ‘부엉이’입니다. 초성 ㅎ 이 ㅇ 으로 바뀌고 꼭지 ㅇ 이 ㅇ 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또 다른 단어로 ‘조희’⁹³⁾입니다. 현 우리말은 ‘종이’입니다. 방언으로 ‘조오, 조우, 종애, 조후, 조희, 조, 조에, 조구, 종외, 종우, 종오, 조이’⁹⁴⁾가 있습니다. 방언에 ‘-후 와 -희’ 가 남아 있지만, 대부분 방언과 현대 국어에서 ‘-오/-우/-에/-외/-이’ 로 변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 색깔에 관한 우리말 변음입니다.

하얗다---->하양

빨갳다---->빨강

파랗다---->파랑

노랗다---->노랑

까맣다---->까망

위의 예에 보시다시피, 종성 ㅎ 이 명사형이 되면서 ㅇ 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변음되는 ㅎ 과 ㅇ 사이가 한자어 종성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자어에 종성 ㅇ 이 나타나는 단어들을 보시겠습니다.

강, 공, 경, 광, 낭, 농, 당, 동, 망, 몽, 명, 방, 봉, 병, 상, 성, 승, 송, 승, 장, 정, 종, 중, 창, 총, 향, 홍, 형, 황,

91)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92)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부엉이의 옛말.

93)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종이의 옛말.

94) 네이버 국어사전

이런 단어들은 결국 우리 고대 한국어 종성 ㅎ 에 온 것으로 봅니다.

강, 공, 경, 광, 낱, 농, 당, 동, 망, 몽, 명, 방, 봉, 병, 상, 성, 승, 샹, 장, 정, 종, 중, 창, 총, 향, 흥, 형, 황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보면, 한자어는 우리 고대 한국어에서 나온 언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물고기 -티를 통해서 본 우리말 -히와 한자어 -어(魚) 추리

먼저 우리 머리 속에 들어온 물고기 어(魚)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상어, 문어, 장어, 붕어, 고등어, 병어, 송어 등 그 누구라도 한자어에서 온 표현이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지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1) 고도리, 고등어

‘고도리’는 ‘고등어’의 우리 옛말입니다. ‘꼬도리’와 ‘고동무치’는 경남 방언이고 ‘고대’는 경북 방언입니다. -어 가 붙는 방언을 보겠습니다. 고도에(함경), 고두에(평안, 함경), 고망어(경기, 함경, 황해), 고마어(평북, 함경).⁹⁵⁾ 앞에서 나온 우리 한국 표식 종성 ㅎ을 적용해 보자면, ‘고동’이 우리 첫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종성이 늘어나면서, 남한에서는 주로 ‘-리, -티, -치’가 되고 북으로 가면서 주로 ‘-어/-에’로 나타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북한의 지점이 중국의 산둥, 상나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위도와 대략 같은 산둥에 위치한 한민족 거래 중 ‘상 부족’이 중원 문화를 개척한 것이 중국의 역사인 것입니다. 흔히 고도어(古道魚/古刀魚)에서 우리말 ‘고도리’, 한자어 ‘고등어’가 나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원래는 우리말 ‘고도리’에서 북상한 북한 방언 ‘고도에’에서 나온 한자어 ‘고도어’입니다.

2) 멸치, 멸어

먼저 네이버 국어 사전에 실린 옛말은 ‘멸티’이고, 방언으로는 ‘멘치, 멜, 멜타구, 멜티, 메치, 메루치, 메러치, 머루치, 미루치, 미러치, 미치, 열치, 멜따구’가 있습니다. 옛말 ‘멸티’를 생각해 보면, ‘-티’는 ‘-히’의 변음입니다. 그러면 ‘멜히’가 나오게 되고, 더 줄임말은 ‘멜’이 됩니다. 우리말은 ‘멜’에서 출발했다고 보면 되는데, 같은 과정을 거쳤다고 봅니다.

멜--->멜히--->멜티(옛말)--->멸치(현대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멸치의 한자어 ‘멸어(鰍魚)’입니다. 그 누구라도 ‘멸어’라는 한자어에서

95) 네이버 국어사전

‘멸치’가 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같은 음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한자어를 만든 사람들이 고대 한국인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통해서 언어의 출처와 전개 과정을 추리할 수 있는데, ‘멜’은 제주 방언입니다. 여기서 처음 생겨난 단어가 남한을 거쳐 북한, 산둥으로, 중원으로 퍼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자어 -어(魚)는 무엇이나 하면, 다음 변음 과정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멜--->멜히--->멸어(鱮魚), 한자어

ㅎ에서 ㅇ 으로 가는 경로는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3) 갈치, 도어(刀魚)

네이버 국어 사전에 실린 옛말은 ‘갈티’ 이고, ‘갈 + -티’ 결합형이라고 보았습니다. 멸치의 옛말이 ‘멸티’ 이듯, 갈치의 옛말은 ‘갈티’입니다. 여기서 최고 고어를 추리해보면, ‘갈히’입니다. 변음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갈 --->갈히-->갈티(옛말)--->갈치(현대어)

의미를 풀어서 ‘도어(刀魚)’라고도 하지만, ‘갈’ 음가를 적용해서 한자어를 만들어 보자면, ‘검어(劍魚)’입니다.

4) 반댕이를 통한 물고기 어(魚) 증명

반댕이의 옛말은 ‘반당이’입니다. -히에서 출발해서 ‘-티, -치, -리, -이, -비, -미’ 로 우리말 이 늘어나는 단어 중 ‘-이’ 입니다. 방언 중에 ‘당의 ㄷ’ 이 ‘ㅈ’ 으로 변하여 반전어⁹⁶⁾와 빈징어⁹⁷⁾ 가 있고, 충남과 황해를 지나면서 ‘-어’ 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이 고대 중국의 산둥이고, 상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문어, 오징어, 고등어, 장어, 상어 등 -어 가 붙은 단어는 모두 고대 한국인들의 연습이라고 추리할 수 있습니다. 한자어로는 '반초어飯鮫魚'라고 하는데, 역시 우리말 ‘반전어/빈징어’ 에 맞춘 고대 이두입니다.

5) -히와 -티의 변화

이런 검토를 통해서 우리 물고기 끝에 달린 꼬리말은 모두 -히에서 나온 변음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래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96) 네이버 국어사전, 황해 방언

97) 네이버 국어사전, 충남 방언

히--->티--->치 : 멸치, 참치, 꽁치, 날치, 버들치, 통치, 갈치, 한치, 누치, 꺾치, 강준치, 낙지, 준치, 어름치, 밀치, 가물치, 곰치, 삼치, 밀치

티의 변음 '-태' 를 그대로 만든 한자어: 명태(明太)

히--->디: 불거디(버들치 옛말)

히--->리/니: 고도리, 도다리, 부시리, 쏘가리, 볼락, 고래, 피리, 쉬리, 치리, 동사리, 갈겨니, 큰납지리, 자가사리, 입실납자루, 통사리, 꾸구리, 빠가사리

히--->이: 전갱이(메가리), 뱀뎡이

히--->개/기: 동자개, 미호종개, 메기

히--->미: 가자미

4. 변음의 구체적 예

변음이 한국어와 고대 한자어 사이에서 작용하는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한국어와 일어 사이에 나타나는 현상과 동일한 규칙입니다.

1) ㅂ----->ㅎ

저는 한국어와 일어 사이에 다음과 같은 변음 규칙이 있음을 파악하고 제가 제일 먼저 규칙을 찾은 줄 알았습니다.

별----->호시

배----->후네

뱀----->헤비

뽕----->하루

불----->히

빛----->히가리

밥/반----->항

그런데 아주 오래 전에 산 서정범 교수님의 책에도 이미 그 규칙이 파악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놀라운 기쁨을 느꼈습니다.

3-8-7 병아리⁹⁸⁾

hiyoko(일어)

hiyoko 는 국어 비육이 그대로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라 하겠다.

hina(일어)

hina 의 어근은 hin 이고 pit 으로 재구 된다. 국어 비육의 조어 pit 과 일치하고 있다.

3-8-8 비둘기

어근이 '빔'으로 나타나는 것은 공통된다.

hato (일어)

일본어 hato 는 pato 로 재구되며 어근 pat 이 재구된다

그 외에도 많은 단어들의 대응 관계를 잘 정리 하였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말과 한자어의 관계를 매우 가까운 사이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7. 국어의 조어와 중국어의 비교99)

우선 중국어도 알타이 어족과 동계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알타이 제어와 중국어가 연결 된다는 것은 중국어의 조어가 알타이 조어와 공통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그런데 알타이 제어 중에서도 한국어와 더 가깝다고 하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더구나 신 제어에 있어서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중국어족과 한족(韓族)이 보다 친밀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

위와 같은 교수님 학설은 제 공부의 정밀성과 최고의 연구임을 뒷받침하는데 중국 상나라 민족이 우리 동이족 일부이기 때문에 가능한 연구 결과입니다. 현재 상나라 민족이 동이족 일부라는 연구 결과가 역사학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찾았다고 생각했던 단어도 일부 있는데, 몇 단어는 제 연구와 완전히 같은 단어였습니다.

7-4-13 木¹⁰⁰⁾

98) 우리말의 뿌리, 서정범, 고려원, 316-317쪽, 핵심적인 내용 만을 주렸습니다. 1989년 발행. 주어진 번호는 서정범 교수님이 부여한 번호입니다.

99) 우리말의 뿌리, 서정범, 고려원, 467-469쪽

100) 고려원, 우리말의 뿌리, 서정범 교수님, 456쪽

막대기와 木 연결은 제 공부와 동일합니다.

7-4-14 松

술은 중국어 松과 연결된다. 역시 제 공부와 일치합니다.

심지어

7-5-6 飯

밥을 飯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정범 교수님의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이제 제 공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말 안에서 ㅂ에서 ㅎ 으로 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밝다=환하다

뵈하다=훤하다

반하다=홀리다

이런 변음 작용이 한자어에서 규칙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ㅂ은 원래 ㅍ 으로 가지만, ㅂ에서 ㅎ 으로도 잘 변음됩니다.

1-1. 바다--->해(海)

1-2. 반디--->형(螢)

1-3. 불----->화(火)

1-4. 불----->후(煦)

1-5. 벼----->화(禾)

1-6. 벼----->학(格)

1-7. 범----->호(虎)

1-8. 바둑--->혁(弈)¹⁰¹⁾

1-9. 받치다, 부러워하다, 받다-->흠(歆)

1-10. 버티다--->항(抗)

1-11. 벼슬--->환(宦)

1-12. 뱃나무 --->화(樺, 椈)

1-13. 부르다-->호(呼)

1-14. 배호다--->학(學)

1-15. 버섯--->환, 균(菌), 권

101) 네이버 한자 사전 글자체

- 1-16. 뼈--->해(骸)
 1-17. 뺨(入뺨)--->협(頰)
 1-18. 벨---->할(割)
 1-19. 번데기--->향(蠶), 회(虻)
 1-20. 범벅--->함(檻)¹⁰²⁾
 1-21. 밝을---->호(皓)
 1-22. 박----->호(瓠)
 1-23. 빛날----->화(華)
 1-24. 빛날----->형(炯)
 1-25. 빛날----->황(煌)
 1-26. 빛날----->황(贛)
 1-27. 맡두둑----->휴(畦)
 1-28. 밝을----->현(炫)
 1-29. 밝을----->황(晃)
 1-30. 밝을----->황(眈)
 1-31. 밝을----->황(曠)
 1-32. 밝을----->확(曜)
 1-33. 이슬 빛날----->현(沚)
 1-34. 불거진 눈----->현(睨)
 1-35. 뱃전----->현(舷)
 1-36. 비름----->현(莧)
 1-37. 마음이 밝을----->황(愧)¹⁰³⁾
 1-38. 볼----->황(睨)
 1-39. 밝게 빛날----->황(煇)
 1-40. 밝고 흰할----->황(尙)
 1-41. 몸 부을----->황(臙)
 1-42. 불 밝을----->황(釐)¹⁰⁴⁾
 1-43. 붉을----->홍(紅)
 1-44. 날 밝으려 할----->홍(昞)
 1-45. 바람 소리----->홍(颶)¹⁰⁵⁾
 1-46. 불 모양----->홍(釐)¹⁰⁶⁾
 1-47. 빠른 바람----->홀(颶)¹⁰⁷⁾
 1-48. 불잡을----->확(颶)¹⁰⁸⁾
 1-49. 빨---->학(髻)
 1-50. 비둘기----->학(鸞)

102) 네이버 한자 사전 글자체

103) ‘환하다’라는 우리말 의미로 접근해도 됩니다.

104) 네이버 한자사전 글자체

105) 네이버 한자사전 글자체

106) 네이버 한자사전 글자체

107) 네이버 한자사전 글자체

108) ‘확 붙잡다’라는 우리말 의미로 접근해도 됩니다.

- 1-51. 보리떡-----> 홀(麪)
 1-52. 보법(우리말)¹⁰⁹----->헌(憲)
 1-53. 봉우리-----> 헌(巘)

2) ㅂ에서 ㅍ 으로

ㅂ에서 ㅍ 으로 가능 경로에는 우리말 안에도 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바람이 다른 단어와 결합하면, ‘마파람’, ‘휘파람’ 이 됩니다. 갯벌은 ‘갯펄’ 로 나타나고, ‘빈둥빈둥’을 중심으로 ‘핀둥핀둥, 뽀뽀뽀뽀, 뽀뽀뽀뽀, 뽀뽀뽀뽀’ 이 나타납니다.

- 2-1. 바람--->풍(風)
 2-2. 붓---> 필(筆)
 2-3. 부수다---> 파쇄(破碎)
 2-4. 베-----> 포(布)
 2-5. 보람----->표(標)
 2-6. 박--->표(瓢)
 2-7. 비키다--->피(避)하다
 2-8. 버리다--->폐(廢)하다
 2-9. (닫아) 버리다--->폐(閉)
 2-10. 빠르다--->표(漂)
 2-11. 박쥐----->복(蝠) 과 편(蝠)
 2-12. 부엌(브섭)--->포(庖)
 2-13. 보금자리(포근하다)--->편(便)하다
 2-14. 방계----->방기(螃蜞), 팽기(蟛蜞)
 2-15. 빼꾸기----->포곡(布穀)
 2-16. 볏다----->편(煽)
 2-17. 부들-----> 포(蒲) 혹은 항(荒)
 2-18. 비탈--->파/피(陂)
 2-19. 뿌리다/퍼트리다--->파(播)¹¹⁰

좀 난해한 ㅂ 의 변음에 관해서는 조금 뒤에 다루고 누구나 알 수 있는 ㄷ 과 ㅈ 사이를 다루겠습니다.

3) ㄷ에서 ㅈ 으로

우리 현대어 중 ‘ㅈ’은 상당수 옛말 ‘ㄷ’에서 나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단어는 ‘좋다’인데

109) 네이버 국어사전: 품격과 법도(法度)를 아울러 이르는 말. 크고 높고 깊은 ‘하다’ 의 ‘헌’

110) 현 한자어와 현대 중국어 사이에도 동일한 변음이 나타납니다. 네이버 글로벌 회화 문장 중 하나를 보겠습니다. 논스톱 편이 있나요? 有直飞航班吗? [Yǒu zhífēihángbān ma? / 여우 즈페이 항뻐 마?] 여기서 한자어 ‘직비(直飛)’가 ‘즈페이’ 란 현 중국어로 변음되었습니다.

옛말은 ‘똥다’¹¹¹⁾입니다.

- 3-1. 대나무----->죽(竹)
- 3-2. 돈---->전(錢)¹¹²⁾
- 3-3. 닷--->정(錠)
- 3-4. 돛대--->장(檣)
- 3-5. 달릴 ---->주(走)
- 3-6. 두루----->주(周)
- 3-7. 뜰 ---->정(庭)
- 3-8. 더하다-->증(增)
- 3-9. 아들--->자(子), 들의 ㄷ의 ㅈ
- 3-10. 뜻--->지(志)
- 3-11. 담----->장(牆)
- 3-12. 탁나무----->저(楮)
- 3-13. 손바닥의 탁--->장(掌)

4) 표에서 ㅈ 으로

표 이 ㅈ,ㅈ 으로 변합니다.

- 4-1. 풀 ---->초(草)
- 4-2. 푸를 ---->청(靑)
- 4-3. 파 ---->충(蔥)
- 4-4. 퍼다--->전(展)

5) 표 이 ㅎ 으로 쉽게 변합니다.

- 5-1. 풀다, 풀어헤치다----->해(解)
- 5-2. 피----->혈(血)
- 5-3. 피----->황(崙)
- 5-4. 팔----->현(悤)
- 5-5. 풍뎡이----->황(蟻)
- 5-6. 피나무----->확(樓)

지금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변음을 우리말 안에서, 더 나아가 우리말과 한자어 사이

111) 네이버 국어사전

112) 돈에서 전으로 가는 경로는 쉬운 변음 관계이지만, 쉽게 알 수 있지는 않다. 여기에 제시된 10개 이상의 단어를 모아보고 우리말 안의 ㄷ에서 ㅈ 으로 변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해 가능하다. 즉 고대 한자어 발음은 ‘전(錢)’이 아니라 ‘돈(錢)’ 이었고, 우리말은 ‘돈’ 그대로 유지 했으며, 한자어는 한자음 정착 시기에 ‘전’으로 바뀐 것입니다.

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 변음을 살펴보겠습니다.

6) ㅂ 이 ㅍ을 거쳐 혹은 그대로 변음 되어 ㅊ, ㅈ, ㅅ 이 됩니다.

ㅂ ---> ㅍ ----> ㅊ

- 6-1. 봄----->ㅍㅁ----->춘(春)¹¹³⁾
- 6-2. 바쁘다--->ㅍㅁ-->충(匆)
- 6-3. 벌레--->ㅍㅁ--->충(蟲)
- 6-4. 배게--->ㅍㅁ--->침(枕)
- 6-5. 병아리(비육)--->ㅍㅁ--->추(雛)
- 6-6. 빌다----->ㅍㅁ----->축(祝)
- 6-7. 버금----->ㅍㅁ----->차(次)
- 6-8. 볍다----->ㅍㅁ----->초(炒)
- 6-9. 부끄럽다----->ㅍㅁ--->치(恥)
- 6-10. 부르다----->ㅍㅁ----->창(唱)
- 6-11. 비(자루)----->ㅍㅁ--->추(帚)
- 6-12. 붓다/부풀다--->ㅍㅁ--->창(脹)
- 6-13. 비비다----->ㅍㅁ----->차(搓)
- 6-14. 비롯하다--->ㅍㅁ--->창(創)
- 6-15. 빚/빚----->ㅍㅁ--->채(債)

ㅂ ---> ㅍ ----> ㅈ

- 6-16. 밭----->ㅍㅁ--->족(足)
- 6-17. 밭----->ㅍㅁ--->전(田)
- 6-18. 빚----->ㅍㅁ--->줄(櫛)
- 6-19. 바탕-->ㅍㅁ/힐--->질(質)
- 6-20. 번개--->ㅍㅁ--->던-->전(電)
- 6-21. 빨간--->ㅍㅁ--->적(赤)
- 6-22. 벼룩-->ㅍㅁ----->조(蚤)
- 6-23. 베다-->ㅍㅁ--->주(誅), 참(斬)
- 6-24. 붓다----->ㅍㅁ--->주(注)
- 6-25. 비녀--->ㅍㅁ--->잠(簪)

113) 봄에서 춘으로 가는 경로는 최고 난이도 경로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이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말에서 한자어로 가는 어려운 변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봄의 ㅂ 이 ㅍ 으로, 다시 ㅍ에서 ㅊ 으로 가는 경로를 깨달아야한다.

ㅅ ---> 표/ㅎ-----> ㅅ

- 6-26. 별----->평/형----->성(星)
- 6-27. 비리다--->평/형--->성(鯉)
- 6-28. 뱀----->파/하----->사(蛇)
- 6-29. 보다--->피/히----->시(視), 살펴보다
- 6-30. 빠르다-->폭/혹----->속(速)¹¹⁴⁾
- 6-31. 받다----->푸/후----->수(受)

- 6-32. 버들치--->푸/후--->수
- 6-33. 부채----->푸/후--->선(扇)
- 6-34. 베껴 쓰다--->파/하--->사(寫)
- 6-35. 뽕나무----->팡/항----->상(桑)
- 6-36. 비로소/바야흐로--->피/히-->시(始)
- 6-37. 부럽다----->편/현----->선(羨)
- 6-38. (흙) 빚다--->포/호--->소(塑)
- 6-39. 배----->편/현----->선(船)¹¹⁵⁾
- 6-40. 번쩍일----->펼/힘----->섬(閃)

7) ㅂ 이 ㅎ 을 거쳐 ㅌ 으로

- 7-1. 벗어나--->탈--->탈(脫)

8) ㅂ 이 ㅎ 을 거쳐 ㅇ 으로

- 8-1. 밤----->ㅍ----->야 (夜)
- 8-2. 비--->후----->우(雨)
- 8-3. 밖--->회----->외(外)
- 8-4. 밤--->홀----->울(栗)
- 8-5. 벼로-->현---> 연(硯)
- 8-6. 버들-->휴---> 유(柳)
- 8-7. 바라다-->환--->원(願)
- 8-8. 바위--->함--->암(巖)
- 8-9. 벼랑--->학--->악(嶺)
- 8-10. 바회(바퀴)-->훈-->윤/륜(輪)
- 8-11. 바구니--->형--->영(簾)

114) 우리말 안에서의 변화 표현으로는 ‘싱싱, 싸게 싸게’가 있습니다.

115) 우리말 안에서의 변화 표현으로는 ‘마생이(목선)’가 있습니다.

- 8-12. 부드럽다--->휴--->유(柔)
 8-13. 베다----->혜----->예(刈)
 8-14. 부리다--->혁----->역(役)
 8-15. 병어리----->하--->아(啞)

9) ㅂ에서 ㅎ 으로 다시 ㄱ 으로

- 9-1. 빗-->황--->광(光)¹¹⁶⁾
 9-2. 바지-->호-->고(袴)
 9-3. 빈--->홍--->공(空)
 9-4. 뼈----->홀--->골(骨)
 9-5. 부지런할-->흔--->근(勤)
 9-6. 비둘기--->후--->구(鳩)¹¹⁷⁾

이번에는 우리말 초성이 사라져 한자음이 ㅇ 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10) ㅁ 에서 ㅇ 으로 ¹¹⁸⁾

- 10-1. 물 마시다----->음수(飲水)
 10-2. 물고기----->어(魚)
 10-3. 말(씀)----->어(語)
 10-4. 매----->응(鷹)

11) ㅂ에서 ㅇ 으로

- 11-1. 비----->우(雨)

12) ㅅ 에서 ㅇ 으로

- 12-1. 소 ----->우(牛)
 12-2. 수컷----->웅(雄)

13) ㅈ 에서 ㅇ 으로

116) 우리말 ‘빗’ 과 한자어 ‘광’을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ㅎ 음이 중간 전달 음가로 작용한다는 것을 깨우치면, 갑골문 초기 발음은 ‘광’ 이 아니라 ‘빗’ 혹은 ‘방(光)’ 이었다는 것입니다. 한자어 정착 시기에 ‘방’ 에서 ‘황’, 다시 ‘광’ 이 된 것입니다.

117) 비둘기 소리 ‘구구’에서 나왔다고 해도 됩니다.

118) 중간 변음 과정을 굳이 표현하자면, ㅁ, ㅂ, ㅅ, ㅈ, ㄱ 에서 ㅎ 으로, ㅎ 다음 ㅇ 으로

13-1. 집 ----->우(宇), 혹은 그대로 '주(宙)'

14) ㄱ 에서 ㅇ 으로

14-1. 곰 ----->웅(熊)

지금부터는 변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ㅎ' 음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겠습니다.

15) ㅎ 에서 ㅎ 탈락 ㅇ

15-1. 해----> 일(日)¹¹⁹⁾

15-2. 한----> 일(一)¹²⁰⁾

15-3. 흐르다-->유/류(流)

15-4. 후벼내다, 할퀴다--->알(挖)

15-5. 헤어지다--->영/령(另)

15-6. 할----->위(爲)

16) ㅎ 에서 ㄱ,ㅋ 으로

16-1. 활---->궁(弓)

16-2. 함께---> 구(俱)

17) ㅎ-->ㅅ,ㅈ,ㅊ 중의 ㅈ

17-1. 할아버지/하나비 조(祖)

18) ㅎ ---> ㅅ,ㅈ,ㅊ 중의 ㅅ

18-1. 혀 설(舌)¹²¹⁾

19) ㅎ --->ㅌ,ㄷ

19-1. 하늘--->텨--->천(天)

19-2. 흙----->토(土)

19-3. 한(크다란 의미)--->태(太)

119) 날 일(日) 경우, ㄴ 이 탈락해서 ㅇ 으로 갑니다. 우리말 안에서의 기본적인 변음 중의 하나입니다.

120) 해----> 일(日)과 마찬가지로 원리로 ㅎ 이 ㅇ 으로 변합니다.

121) 서: '혀(1. 동물의 입 안 아래쪽에 있는 길고 둥근 살덩어리)'의 방언(경남, 전라, 충청), 심: '힘'의 방언(강원). 우리말 ㅎ 이 방언에서 ㅅ 으로 납니다.

19-4. 활다--->데---->지(舐)

20) 흥 에서 표 으로¹²²⁾

20-1. 해질-----> 폐(敝)

21) 흥 에서 ㅂ 으로¹²³⁾

21-1. 흰--->백(白)

21-2. 해오라기 --->백로(白鷺)

위와 같이 흥에서 다른 음가로 변음되는 것과 반대로 다른 음가에서 흥으로 가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22) ㅌ, ㄷ, ㅈ 에서 흥 으로

ㄷ 에서 흥 으로 변음 과정을 좀 더 자세히 하자면, ㄷ 다음 ㅌ, ㅌ 다음 흥 이 됩니다.

22-1. 뒤-----> 후(後)

22-2. 두터울----->후(厚)

22-3. 틈-----> 하(罅)

22-4. 데울-----> 하(煨)

22-5. 두꺼비----->하(蝦)

22-6. 따뜻하게 할----->후(休)

22-7. 떠들썩할-----> 흥(哄)

22-8. 떠들썩할----->화(嘩)

22-9. 두려워할-----> 황(惶)

22-10. 대숲-----> 황(篁)

22-11. 들보리-----> 황(橫)

22-12. 트일-----> 활(闊)

22-13. 당길-----> 확(曠) 혹은 광

22-14. 드릴----->헌(獻)

22-15. 도울-----> 호(護)¹²⁴⁾

22-16. 동다/좋다----->호(好)¹²⁵⁾

22-17. 담비-----> 학(獬)

122) 표과 흥 은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123) 1) ㅂ----->흥에서 먼저 우리말 초성 ㅂ 이 흥 간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변음 관계는 역으로의 경우입니다.

124) 도울 도--->토-->호 경로로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125) 동다/좋다--->토--->호 경로로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22-18. 돌산-----> 학(嶺)

22-19. 터럭-----> 호(毫)

23)ㅇ 에서 ㅎ 으로

23-1. 아래-----> 하(下)

23-2. 여름/너름--->하(夏)

23-3. 어찌----->하(何)

23-4. 울부짖을-----> 후(吼)

23-5. 아름다울----->후(姁), 할머니----->후(姁)

23-6. 아름다울-----> 휴(休)

23-7. 이지러질-----> 휴(虧)

23-8. 어지러울-----> 현(眩)

23-9. 외로울-----> 혈(孑)

23-10. 어질-----> 현(賢)

23-11. 이룰-----> 형(脞)

23-12. 어리둥절할-----> 황(慌)

23-13. 웅덩이-----> 황(潢)

23-14. 어머니-----> 황(煌)

23-15. 달빛이 어스름할-----> 황(隉)

23-16. 어지러울-----> 홍(訔)

23-17. 어두울-----> 홍(睞)

23-18. 아이 울-----> 홀(瘡)

23-19. 어두운 새벽-----> 홀(晷)¹²⁶⁾

23-20. 움킬-----> 확(攬), 확 움켜잡다 ----->확(攬)

23-21. 우뚝할-----> 홀(拍)¹²⁷⁾

23-22. 우뚝 솟을 -----> 홀(屹)

23-23. 어그리질-----> 헌(謫)

24) ㄱ,ㅋ 에서 ㅎ 으로

24-1. 꽃/곶-----> 화(花)

24-2. 그림-----> 화(畵)

24-3. 골-----> 학(壑)

24-4. 깊을----->화(濶)¹²⁸⁾

24-5. 가물-----> 한(旱)

24-6. 구멍-----> 혈(穴)

24-7. 검은-----> 흑(黑)

126) 네이버 한자 사전 글자체

127) 네이버 한자 사전 글자체

128) 크고 넓고 깊다 의 우리말 ‘하다’ 그대로 보아도 됩니다.

24-8. 기침-----> 흑(默)
 24-9. 검을-----> 현(玄)
 24-10. 고을-----> 현(縣)
 24-11. 고개-----> 현(峴)
 24-12. 거울-----> 현(鑲)
 24-13. 꽃다울-----> 형(馨)
 24-14. 가시나무-----> 형(荊)
 24-15. 국그릇-----> 형(銅)
 24-16. 겁낼-----> 형(哼)
 24-17. 코 풀-----> 형(擤)
 24-18. 찌꼬리-----> 형(薦)
 24-19. 거칠-----> 황(荒)

24-20. 깊을-----> 황(浍)
 24-21. 깊을-----> 홍(泓)
 24-22. 큰 배-----> 황(桴)
 24-23. 배 클-----> 홍(仞)
 24-24. 눈이 큰 모양-----> 황(睨)
 24-25. 큰소리-----> 황(諠)
 24-26. 큰 개-----> 황(獍)
 24-27. 큰 기러기---> 홍(鴻)
 24-28. 큰 물-----> 홍(潯)
 24-29. 클-----> 확(廓)
 24-30. 속 깊을-----> 홍(霰)
 24-31. 큰 골-----> 홍(洪)
 24-32. 큰 소리-----> 홍(峰)
 24-33. 큰 소리-----> 홍(訔)

깊을 황(浍)부터 큰 소리 홍(訔)까지는 깊다와 크다 라는 의미이니 모두 우리말 ‘하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24-34. 구렁-----> 홍(硿)
 24-35. 꽃술-----> 황(癰)
 24-36. 기러기-----> 홍(鴻)
 24-37. 개여뀌-----> 홍(葒)
 24-38. 구덩이---> 홍(隍)
 24-39. 똥구멍---> 항(肛)
 24-40. 근심할-----> 홀(唳)
 24-41. 걱정할-----> 홀(嘯)
 24-42. 굳을-----> 확(確)

- 24-43. 거들----> 확(穫)
 24-44. 깔----> 확(霽)¹²⁹⁾
 24-45. 구멍 속----> 헌(簞)

25) ㅅ,ㅈ,ㅊ 에서 ㅎ 으로

ㅅ에서 ㅎ 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 25-1. 새우---->하(蝦)
 25-2. 신----->화(靴)
 25-3. 신발----->하(緞)¹³⁰⁾
 25-4. 숫돌-----> 하(碓)
 25-5. 소매-----> 하(袂)¹³¹⁾
 25-6. 썩을-----> 후(朽)
 25-7. 송아지-----> 후(牯)¹³²⁾
 25-8. 쉴-----> 휴(休)
 25-9. 수리 부엉이-----> 휴(鵂)
 25-10. 쇠-----> 흑(鈎)
 25-11. 산뜻할-----> 현(嫵)
 25-12. 소리-----> 현(弦)¹³³⁾
 25-13. 싫어할-----> 혐(嫌)
 25-14. (개가) 싸울-----> 혐(獫)
 25-15. 실개천-----> 형(榮)
 25-16. 소용돌이 칠-----> 형(渦)
 25-17. 술독-----> 형(耕)
 25-18. 쌀---> 황(糧)
 25-19. 싸울-----> 흥(鬪)
 25-20. 물 솟아날-----> 흥(漑)
 25-21. 살찔-----> 흥(甕)
 25-22. 실꾸리-----> 흘(綱)
 25-23. 살-----> 활(活)
 25-24. 소낙비-----> 확(霽)¹³⁴⁾
 25-25. 슴새-----> 확(驥)
 25-26. 사람이 산 위에 있을-----> 헌(仝)
 25-27. 섬기다----->효(孝)
 25-28. 새벽----->효(曉)

129) ‘흰히 개다’ 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됩니다.

130) 네이버 한자사전 글자체

131) 네이버 한자사전 글자체

132) 네이버 한자사전 글자체

133) 네이버 한자사전 글자체

134) 네이버 한자사전 글자체

- 25-29. 성낼-----> 효(哮)
 25-30. 사귀다 -----> 효(爇)
 25-31. 삭히다----->효(酵)
 25-32. 섞일----->효(骹)
 25-33. 시끄러울 ----->효(聊)

ㅈ에서 ㅎ 으로 간 경우입니다.

- 25-34. 줄-----> 현(絃)
 25-35. 저울-----> 형(衡)
 25-36. 줄(연장)-----> 형(鑒)
 25-37. 족두리풀-----> 형(衡)
 25-38. 잠꼬대 할-----> 황(謊)
 25-39. 주릴-----> 함(顙)
 25-40. 장다리-----> 흥(蕕)
 25-41. 자-----> 확(萐)
 25-42. 자새(작은 얼레)-----> 확(簍)
 25-43. 자랑할-----> 후(詡)
 25-44. 집-----> 현(軒)
 25-45. 집, 지게-----> 호(戶)
 25-46. 칠-----> 현(攄)
 25-47. 지렁이-----> 현(螪)

ㅊ에서 ㅎ 으로 간 경우입니다.

- 25-48. 찰-----> 한(寒)
 25-49. 칠-----> 황(攄)

26) ㅍ 에서 ㅎ 으로

- 26-1. 맑을-----> 호(溟)
 26-2. 마늘-----> 호(葫)
 26-3. 무-----> 하(荷)
 26-4. 멀-----> 하(遐)
 26-5. 목구멍-----> 후(喉)
 26-6. 맡을-----> 후(嗅)
 26-7. 만날-----> 후(逅)
 26-8. 마를-----> 후, 학(涸)

- 26-9. 모질----> 학(虐)
- 26-10. 맏돌----> 학(磻)
- 26-11. 매울----> 학(噉)
- 26-12. 말씀----> 화(話)
- 26-13. 머리----> 혈(頁)
- 26-14. 매달----> 현(懸)
- 26-15. 무늬----> 현(絢)
- 26-16. 밀치끈---> 현(靽)
- 26-17. 맏----> 형(兄)
- 26-18. 모습----> 형(形)
- 26-19. 물이 맑을----> 형(澄)
- 26-20. 멀----> 형(洞)
- 26-21. 메뚜기---> 황(蝗)
- 26-22. 메기장----> 황(程)
- 26-23. 무지개----> 홍(虹)
- 26-24. 묵은 쌀-----> 홍(粳)
- 26-25. 문득----> 홀(慈)
- 26-26. 물 이름-----> 현(瀋)

27) ㄴ 에서 ㅎ 으로¹³⁵⁾

- 27-1. 나타날----> 현(現)
- 27-2. 누를----> 황(黃)
- 27-3. 노래기----> 현(蚊)
- 27-4. 나들이 옷----> 현(絃)
- 27-5. 노리개-----> 형(珩)
- 27-6. 누룩곰팡이----> 황(橫)
- 27-7. 노래-----> 홍(噴)
- 27-8. 놀랄----> 확(櫻)
- 27-9. 나무 이름-----> 현(櫟)
- 27-10. 넓힐-----> 확(擴)
- 27-11. 넓을-----> 황(完)
- 27-12. 넓을-----> 홍(弘)
- 27-13. 넓을-----> 홍(滢)

우리말 ‘하다’에 포함된 ‘넓다’가 있으니 우리말 ‘하다’의 ‘황’과 ‘홍’

28) ㅎ에서 ㅎ 으로

135) 우리말에서는 ㄴ 이 사라져 ㅇ 이 되니 ㄴ 에서 ㅇ, ㅇ 다음 ㅎ 으로 보아도 됩니다.

- 28-1. 하늘----> 호(昊)
- 28-2. 활-----> 호(弧)
- 28-3. 활시위-----> 현(弦)
- 28-4. 훔-----> 호(皓)
- 28-5. 환히-----> 호(眙)
- 28-6. 허물-----> 하(瑕)
- 28-7. 횡할-----> 하(飭)
- 28-8. 횡할 ----> 함(飭)
- 28-9. 화살-----> 후(鏃)
- 28-10. 헤아릴-----> 혈(絜)
- 28-11. 물 흐릴----> 흑(漂)
- 28-12. 햇살----> 현(睨)
- 28-13. 햇빛----> 현(眩)
- 28-14. 향긋할----> 험(馥)
- 28-15. 향기로울----> 험(馥)
- 28-16. 헤맬-----> 황(惶)
- 28-17. 험걸찰-----> 황(越)
- 28-18. 달빛이 흐릴----> 흥(腴)
- 28-19. 험 그릇-----> 홀(匱)
- 28-20. 회초리-----> 확(確)

29) ㄴ에서 ㄷ 으로

- 29-1. 내기, 노름----> 도(賭)

ㄴ, ㄷ, ㅌ 훈민정음의 설음입니다. 설음들 사이에서는 서로 자주 교차 변음을 합니다.

30) ㄴ 에서 ㅈ 으로

이 변음의 길은 ㄴ 에서 ㄷ, 다시 ㅈ 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ㄴ 에서 ㄷ 으로의 변음 길은 ㄴ, ㄷ, ㅌ 훈민정음의 설음 사이의 교차 변음이고, ㄷ에서 ㅈ은 일상적인 변음 경로입니다.

- 30-1. 낮 --> 두---> 주(晝)
- 30-2. 낮을 ---> 더---> 저(低)

중요한 우리말 단어와 한자어가 대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1) ㄴ에서 ㅅ 으로

31-1. 나물----->소(蔬)¹³⁶⁾

31-2. 눈 ----->설(雪)

ㄴ에서 ㅅ 으로 가는 변음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ㄴ에서 ㅇ 으로 가고 다시 ㅎ 으로 발음이 살아나 ㅅ 으로 변음되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물--->오/호---->소(蔬)

눈 ---->얼/혈--->설(雪)

32) ㄴ에서 ㅎ 으로

32-1. 놀이----> 희(戲)

32-2. 노을----> 하(霞)

모든 초성은 ㅎ 으로 가고, 역으로 ㅎ 도 모든 초성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꼭 중간 단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ㄴ 이 ㅇ 으로 가는 우리말 일반적인 경로를 설정하고 ㅇ에서 ㅎ 으로 살아나는 변음이 됩니다.

놀이----> 의----> 희(戲)

노을----> 아----> 하(霞)

33) ㄴ에서 ㄱ 으로

33-1. 나라----> 궤/국(國)

33-2. 노래----> 가(歌)

33-3. 내릴----> 강(降)

가장 어려운 변음 과정이지만, ㄴ에서 ㅎ 으로 가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면, ㅎ에서 ㄱ 으로 가는 것은 일반적인 변음 과정입니다.

나라---> 워--->획--->궤/국(國)

노래---->아--->하---> 가(歌)

내릴---->앙--->항---> 강(降)

다음 항목은 한자어 초성 ㅅ 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로는 ㅎ에서 ㅅ 으로 가는 경로입니다.

136) 우리말 안에 '푸성귀'의 '성'의 '소' 란 의미로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34) ㅇ 에서 ㅅ 으로

- 34-1. 윗----->상(上)
- 34-2. 이길-----> 승(勝)
- 34-3. 이을-----> 승(承)
- 34-4. 오를-----> 승(昇)
- 34-5. 잉아/실/줄---> 승(滕)
- 34-6. 이-----> 시(是)
- 34-7. 일 -----> 사(事)¹³⁷⁾
- 34-8. 웃을-----> 소(笑)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중간에 ㅎ을 넣어 주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 윗----->항--->상(上)
- 이길----->흥---> 승(勝)
- 이을----->흥-----> 승(承)
- 오를-----> 흥----->승(昇)
- 잉아/실/줄--->흥----->승(滕)
- 이----->히-----> 시(是)
- 일 ----->하---> 사(事)
- 웃을----->호-----> 소(笑)

35) ㅇ -----> ㅁ

- 35-1. 얼굴 ----->면(面)

초성을 맞추고 싶다면, ‘머리 면’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36) ㅌ----->ㅅ

- 36-1. 탈 승(乘)¹³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중간에 ㅎ을 넣어 주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 탈----->흥---> 승(乘)

37) ㅍ----->ㅅ

137) 일 업(業)은 우리말 초성이 그대로 전달된 한자음입니다.

138) ‘실다와 수레’의 의미로 다가가도 됩니다.

37-1. 파리 승(蠅)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중간에 ㅎ을 넣어 주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파리/폴 --->홍--->승

38) ㅂ -----> ㅁ

ㅁ,ㅂ,ㅍ,ㅃ 은 훈민정음에서 순음을 표현하는데 서로 교차해서 변음합니다. 먼저 ㅂ 에서 ㅁ 으로의 경로를 보겠습니다.

38-1. 밝을----> 명(明)

38-2. 보리----> 맥(麥)

38-3. 버선----> 말(襪)

38-4. 바를----> 말(抹), 문지르다

38-5. 벗어나다--->면(免)하다

38-6. 뽁뽁할---> 밀(密)

39) ㅁ에서 ㅂ 으로

39-1. 막다--->방(防)

40) ㅁ 그대로 ㅁ

40-1. 물방울-----> 말(沫)

41) ㅁ에서 ㅅ 으로

41-1. 물---> 수(水)

41-2. 뫼---> 산(山)

41-3. 몸---> 신(身)

41-4. 마음---> 심(心)

41-5. 마늘---> 산(蒜)

41-6. 머리---> 수(首)

41-7. 모래-----> 사(沙)

41-8. 못-----> 소(沼)

최고 난이도 변음 중의 하나입니다. ㅁ 이 사라지면서 ㅇ 이 되는데, 다시 음이 ㅎ 으로 살아올라 온 후 ㅎ 이 ㅅ 으로 변합니다.

42) ㅁ 이 사라져 ㅇ 되는 경우

42-1. 못-----> 연(淵)

43) ㅁ 에서 ㅇ, 다시 살아나 ㅌ 으로

43-1. 못-----> 담(潭), 당(塘)¹³⁹⁾

44) ㅅ에서 ㅈ 으로, ㅈ에서 ㅅ 으로

ㅅ,ㅈ,ㅊ,ㅉ는 훈민정음의 치음입니다. 역시 치음 사이에서 교차 변음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단어 3개를 먼저 보겠습니다.

44-1. 새-----> 조(鳥)

44-2. 술-----> 주(酒)

역으로

44-3. 쥐-----> 서(鼠)

즉 갑골문 초기 음가는 ‘새 소(鳥)’ ‘술 수(酒)’, ‘쥐 저(鼠)’로서 고대 우리말 그대로 초성을 발음했으나 후대 치음 사이의 변음이 발생해서 현 한자음이 된 것입니다.

44-4. 글씨의 씨의 ㅅ -----> 자(字)의 ㅈ 으로

44-5. 맵시의 시의 ㅅ -----> 자(姿)

44-6. 암소의 소의 ㅅ-----> 자(牝)

44-7. 놈, 사람의 ㅅ -----> 자(者)

44-8. 스스로-----> 자(自)¹⁴⁰⁾

44-9. 사람, 사랑-----> 자(慈)

44-10. 삶을-----> 자(煮)

44-11. 사람, 스승의 ㅅ 그리고 아들의 들의 ㅌ에서 나온 -----> 자(子)

44-12. 살-----> 주(住)

44-13. 구슬의 슬의 ㅅ -----> 주(珠)

44-14. 술---->주(酒)

44-15. 섬----->주(洲)

44-16. 쇠 부어 만들 --->주(鑄)

44-17. 쌓을-----> 저(貯)

139) 의미로는 물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140) 우리말 안에서 변음 된 동의어로 ‘저절로’가 있습니다.

ㅈ 에서 ㅅ 으로

- 44-18. 저자-----> 시(市)
- 44-19. 저녁-----> 석(夕)
- 44-20. 주울-----> 습(拾)
- 44-21. 주름-----> 습(褶)
- 44-22. 죽을-----> 사(死)
- 44-23. 젖을-----> 습(濕)
- 44-24. (해가) 지다-->서(西)
- 44-25. 죽음-----> 시(屍)
- 44-26. 죽일-----> 시(弑)
- 44-27. (차례로) 줄 서다-->서(序)
- 44-28. 잘-----> 숙(宿), 수(睡)
- 44-29. 일찍의 짙-----> 숙(夙)
- 44-30. 지킬-----> 수(守)
- 44-31. 지킬-----> 수(戌)
- 44-32. 줄-----> 수(授)
- 44-33. 반독/반죽의 죽의 --->수(漚)
- 44-34. 메주의 주 -----> 시(豉)
- 44-35. 줄-----> 승(繩)

45) ㅊ----->ㅅ¹⁴¹⁾

- 45-1. 천천히/천천히-->전전히-->서서히(徐徐)
- 45-2. 찾다----->주--->수(搜)

46) ㅊ에서 ㅅ으로

ㅊ에서 ㅅ으로 가는 길에 ㅈ을 넣으면¹⁴²⁾ 이해하기 쉽습니다.

- 46-1. 닦을-----> 수(修)
- 46-2. 드디어-----> 수(遂)
- 46-3. 뛰어날-----> 수(殊)
- 46-4. 따를-----> 수(隨)
- 46-5. 드리울-----> 수(垂)

47) ㅅ 그대로

141) ㅊ과 ㅅ 사이에 ㅈ을 넣으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ㅊ-->ㅈ-->ㅅ

142) ㅊ--->ㅈ--->ㅅ

- 47-1. 손----> 수(手)
- 47-2. 셀----> 수(數)
- 47-3. 스승----> 사(師)
- 47-4. 스님----> 승(僧)
- 47-5. 솔 ---> 송(松)
- 47-6. 글 쓰다, 글씨----> 서(書)
- 47-7. 실마리----> 서(緒)
- 47-8. 섬----> 서(嶼)
- 47-9. 살(갯들어)----> 서(棲)
- 47-10. 새벽----> 서(曙)
- 47-11. 무소----> 서(犀)
- 47-12. 서로----> 서(胥)
- 47-13. 숨/소음----> 서(絮)
- 47-14. 씹을----> 서(噬)
- 47-15. 느슨할의 순----> 서(紓)
- 47-16. 실어낼----> 수(輸)
- 47-17. 목숨의 숨----> 수(壽)
- 47-18. 부시(돌)의 시----> 수(燧)
- 47-19. 소매----> 수(袖)
- 47-20. 숨길----> 수(廋)
- 47-21. 바람소리----> 수(颺)
- 47-22. 쉼----> 시(柴)
- 47-23. 숟가락----> 시(匙)
- 47-24. 화살의 살----> 시(矢)
- 47-25. 삼베----> 시(總)
- 47-26. 굳세다의 세----> 시(僇)
- 47-27. 외뿔소의 소 ----> 시(兕)
- 47-28. 굵은 실끈----> 시(綱)
- 47-29. 새매 ----> 시(鴟)
- 47-30. 슬기----> 서(諳)
- 47-31. 새집----> 소(巢)
- 47-32. 남새의 새----> 소(蔬)
- 47-33. 상수리나무----> 서(苧)
- 47-34. 쉼----> 서(厖)
- 47-35. 애쓰다의 쓰 ----> 서(恹)
- 47-36. 짜라기----> 서(糶)
- 47-37. 이삭의 삭의---> 수(穗)
- 47-38. 근심의 심의---> 수(愁)

48) ㄱ에서 ㅈ 으로

우리말 ‘길’이 방언에서 ‘질’로 나는 경우, 겨울에서 방언 ‘점/줍’¹⁴³⁾ 으로 나는 경우입니다.

48-1. 그칠 지(止)

5. 대응 관계가 명확한 언어 DNA

여기서는 우리말에서 나온 한자어가 분명한 단어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 1) 밀바탕, 밀뿌리====>민본(民本)
혹은 무리의 옛말 ‘믈’ 의 민(民)

본(本)는 뿌리의 옛말 ‘불휘’

- 2) 바르고 점잖다====> 방정(方正)
방(方)=바르다, 정(正)=점잖다

- 3) 시암====>수원(水源)

마시다의 시의 물 수(水) 혹은 앞에서 다루었듯이 口 의 변음 ㅅ ,
혹은 낚수(낚시)의 수, 물 수(水)
암= 원(源) 혹은 마실 음(飲)

- 4) 뵈고 아뢰다====>배알(拜謁)

- 5) 이야기를 나누나/ 얘기를 나누다====>의논(議論)/논의(論議)

이야기/얘기=의(議), 나누다=논(論)

- 6) 기다리다====>기대(期待)
기다리다 그대로 '기대(期待)'

- 7) 착 붙이다[부치다], 붙이고 차다 =====>부착(附着)

- 8) 환하고 아름다워 뚜렷하다=====>화려(華麗)
환하다=빛날 화(華), 아름다워 또렷하다 혹은 가령가령하다¹⁴⁴⁾=고울 려(麗)

- 9) 차다, 공을=====>축구(蹴球)

143) 네이버 국어사전

144) 네이버 국어사전, 가령가령하다: [옛말] 깨끗하고 곱다.

차다에서 나온 찰 축(蹴), 공에서 나온 공 구(球)¹⁴⁵⁾

10) 화살이 날다=====>호비(弧飛)¹⁴⁶⁾

활=호(弧), ㄹ 탈락된 우리말

원구비:<운동> 국궁(國弓)에서, 쏜 화살이 높이 떠서 날아가는 일.¹⁴⁷⁾

반구비(半--): <운동> 국궁(國弓)에서, 쏜 화살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게 적당한 높이로 날아가는 일.¹⁴⁸⁾

화살이 반구비, 원구비하여 날아가니 구비해서 날 비(飛), 혹은 날다의 ㄴ 의 변음 ㅂ

11) 빛을 비추다 =====>빈축(斌燭), 빈출(彬出)

빛=빈(彬, 斌)

비추는 도구, 추의 축(燭)

12) 크덴하다=====>거대(巨大)

크덴하다¹⁴⁹⁾=커다랗다, 거하고¹⁵⁰⁾ 대단하다.

13) 간추리다=====>간찰(簡札)

일상의 일을 간추려 적은 편지

콜라=가리다=간

추리다=출/찰 : 간출(簡出)

간동하다¹⁵¹⁾=간단(簡單)

간택(揀擇)일 경우 ‘가리고 콜라’의 간(揀)

145) ‘공 구’는 박대중 쌤 책에 있습니다.

146) 실제 한자 단어는 아니지만 제시단어로 만들었습니다.

147) 네이버 국어사전

148) 네이버 국어사전

149) 네이버 국어사전, [방언] ‘커다랗다(매우 크다)’의 방언(경남).

150) 네이버 국어사전, 1 . 산 따위가 크고 웅장하다. 2 . 나무나 풀 따위가 우거지다. 3 . 지형이 깊어 으스스하다.

151) 네이버 국어사전, 흐트러짐이 없이 잘 정돈되어 단출하다.

14) 주대로 낚아 올리다=====>조어(釣魚)

주대=낚시 줄과 대, 주대의 주의 낚시 조(釣), 혹은 ㄴ에서 ㄷ으로 변음
어(魚)=아가미의 아, 혹은 물고기의 변음 '어'¹⁵²⁾

15) 판가름하다=====>판결(判決)

판나다¹⁵³⁾, 판가름하다=판결(判決)
가려서 끝내다 =결(決)

16) 닦여진 바른 길로 다스리다=====>도리(道理)

닦여진 길, 다스리다 의 다=도(道), ㄱ에서 변음 되어 ㄷ으로
'다스리다'의 '스리'의 사리(事理)

17) 세기 돌린=====>기세(氣勢)

18) 향긋하다 그대로 =====>향기(香氣)

19) 보태어 굳세게 하다=====>보강(補強)

보태다=보(補), 굳세다=강(強)

20) 차에 타고 신다=====>탑승(搭乘)

타다=탑(搭), 신다=승(乘)

21) 글을 쓰고 채운 =====>서책(書冊)

쓰다=글 서(書)

채우다=책(冊), 내용으로 지식을 채우고 성현의 글로 지혜를 채우다.

22) 덧붙임[덧부침] 돌린=====>첨부(添附)

붙이다[부치다]의 부착(附着)을 돌렸다고 보아도 됩니다.

23) 보살피다 줄인===>보필(輔弼)

152) '3. 물고기 -티를 통해서 본 우리말 -히와 한자어 -어(魚) 추리'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153) 네이버 국어사전, 1. 끝장이 나다. 2. 재산이나 물건이 모조리 없어지다.

24) 옷을 받쳐 입다 =====>의복(衣服)

옷은 우리말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의복(衣服)은 분명히 한자어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복 : [방언] ‘옷1(몸을 싸서 가리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피륙 따위로 만들어 입는 물건)’의 방언(평안, 함경).¹⁵⁴⁾

북한으로 가면 우리말 ‘옷’이 ‘이복’이 되는 것이지 ‘의복(衣服)’에서 온 북한 방언이 아닙니다. 더 고대어를 가지고 추리해보자면, 서남해에 있던 첫 우리말 '옴'이 북상하면서 ㄴ 이 탈락되고 우리말 '옷[온]'이 되고, 북한은 ㅎ 발음이 ㅂ 으로 바뀐 후 '이복'이 되었다고 봅니다. 상나라 선조 출발지인 산둥(배달국 지역 중 하나)도 비교적 위쪽이니, 북한 방언 ‘이복’과 같은 ‘의복(衣服)’ 이 되는 것입니다.

25) 마음이 선선하여 복을 돌려 받다=====>복선(福善)

선선하다, 숫접다, 수수하다=착할 선(善), 복(福)은 ‘돌려 받다’ 로 이해해도 되고 혹은 ‘흐뭇하다’ 에서 나온 ‘행복(幸福)’ 이니 ‘복(福)’은 ‘보람’입니다.

26) 수수하다 그대로===>순수(純粹)

27) 우거지고 숲이 엄청 차오르다=====>울창(鬱蒼)

28) 미미하고 추레하다=====>미추(美醜)

미미하다: 보기에 좋다.¹⁵⁵⁾

추레하다: 1 . 겉모양이 깨끗하지 못하고 생기가 없다. 2 . 태도 따위가 너절하고 고상하지 못하다.¹⁵⁶⁾

추접다: [방언] ‘더럽다’의 방언(경상).¹⁵⁷⁾ =추잡(醜雜)

29) 비슷하다 돌려=====>사이비(似而非)

30) 벗기고 빼뜯다=====>박탈(剝奪)

154) 네이버 국어사전

155) 네이버 국어사전

156) 네이버 국어사전

157) 네이버 국어사전

지위나 재산을 벗기고/벗기고 빼뜯다 =박탈(剝奪)

31) 복잡복잡 시끌복잡 복대기다=====>복잡(複雜)

32) 시끌벅적한 자리이자 마당, 싱싱한 물건을 사고파는 마당===>시장(市場)

33) 머리(얼굴)를 가리는 도구 돌린 =가면(假面)

34) 간추리다 =====> 간출(簡出)

‘가리고 추리다’ 우리말 축음 ===>간추리다===>한자어 축음 ‘간출(簡出)’

35) 치우고 쓸다=====>청소(淸掃)

치우다=청, 쓸다=소

36) 태어나서 삶이 생기다=====> 탄생(誕生)

37) 저절로 그러하다고 여기다=자연(自然)

저절로, 절로=스스로 자(自)

38) 자세를 바로 잡아 점잖게 자리에 앉다.=====>정좌(正坐)

바로 잡다=방정(方正)

39) 저절로 돌다, 돌아다니다=====> 자동(自動)

40) 창조주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많은 것=====> 만물(萬物)과 물건(物件)

41) 돌아다니게 만들어진 것들(몸들)=====>동물(動物)

42) 심어져 자라게 만들어진 것들=====> 식물(植物)

43) 생기가 들어있게 만들어진 것들=====> 생물(生物)

44) 만들어진 모든 것의 바르게 다스림=====> 물리(物理)

45) 두루마기=====>도포(道袍)

두루마기 =도(道), 마기의 변음 ‘포’, 혹은 ‘포(袍)’는 ‘햇옷’¹⁵⁸⁾ 이니 ‘햇’의 변음 ‘포’

46) 일을 쓰고 다스림====> 사리(事理)

47) 굳게 깊이 박힌 뿌리(뿌렁구)/ 원간¹⁵⁹ 뿌리/금분¹⁶⁰ 뿌리====>근본(根本)

굳게 깊이 박힌=근(根)

뿌리(불휘, 뿌렁구), 바탕, 바른 보기 =본(本)

48) 나의 뿌리와 거룩한 곳(고장, 고작¹⁶¹, 고닥¹⁶²)=본국(本國)

‘나라 국’의 경우 ‘4. 33) ㄴ에서 ㄱ 으로’ 항목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49) 고을 그대로 ====>군읍(郡邑)

고을, 집들이 구름 같이 모인 고을 =군(郡)

고을과 마을의 읍의 읍(邑)

행정단위로 구분하자면, 고을이 군(郡), 마을이 읍(邑)

50) 가려주는 가까운 핏줄=가족(家族)

전문가(專門家)인 경우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로 해석해야 하고, 한자 상으로는 ‘돼지를 기르는 곳’이란 의미로 이해해도 됩니다. 한자 구성 중 갓 머리를 중시하면 ‘가리방하는 곳’입니다.

51) 가려야하는 핏줄(민족)들이 살아가는 거룩한 곳인 나라=====> 국가(國家)

‘나라 국’의 경우 ‘4. 33) ㄴ에서 ㄱ 으로’ 항목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52) 보살피다 그대로 줄여====>보필(輔弼)

‘보살피다, 보듬다, 지켜보다’ 는 두 가지 한자로 나타납니다. 지키고 도우면 보(保), 그리고 ‘바퀴살의 힘을 돕는다’ 라고 하는 의미에는 차(車)를 붙여 ‘보(輔)’란 다른 한자를 사용합니다.

53) 노래 가락 굽이====>가곡(歌曲)

변음으로 생각할 경우 ‘4. 33) ㄴ에서 ㄱ 으로’ 항목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158) 네이버 국어사전, [같은 말] 솜옷(안에 솜을 두어 만든 옷).

159) 네이버 국어사전, 워낙(본디부터) 의 옛말

160) 네이버 국어사전, [방언] ‘워낙’의 방언(경남).

161) 네이버 국어사전, [방언] ‘고장(2. 어떤 물건이 특히 많이 나거나 있는 곳)’의 방언(전남).

162) 네이버 국어사전, [방언] ‘고장’의 방언(제주).

54) 가리는 옷=====> 갑의(甲衣)

55) 높이 솟은 것과 쌓아 올린 것을 자랑하다=====> 숭상(崇尚)

56) 애잔하다 중 애통하다 의 의미 ==>애절(哀切), 애잔하다 중 약하다 의 의미, 애잔을 돌려====>잔약(孱弱)

57) 애통하고 안타깝다=====> 애통(哀痛)

58) 하나를 이루다=====> 합일(合一)

혹은 하나의 ‘한’ 의 변음 ‘일’

59) 틀어잡아 이루다=====> 통일(統一)

60) 나무 마상이=====> 목선(木船)

마상이: 1 . 거룻배처럼 노를 젓는 작은 배. 2 . 통나무를 파서 만든 작은 배. [비슷한 말] 독목선·독목주·통나무배·통목선.¹⁶³⁾

61) 가람,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솟은 것=====> 강산(江山)

산의 경우 ‘뢰’ 의 변음으로 접근해도 됩니다.

62)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솟은 것의 생김새 =====> 산색(山色)

63) 가로 세로로 가지런히 갈아 논밭을 장만하다=====> 경작(耕作)

갈다=경(耕), 짓다, 장만하다=(作)

64) 논밭 가꾸기를 일삼다=농사(農事)

농다(식물을 심고 가꾸다)의 농(農)

65) 지어 만들어져 장만하다=====> 작물(作物)

66) 엉기어 작게 뭉치어 오그라들다 혹은 움츠리다 =====> 응축(凝縮)

67) 차근차근 치올리어 둘러쌓은 독=====>축동(築洞)

163) 네이버 국어사전

68) 고르게 퍼다, 고르고 판판하다 =====>공평(公平)

69) 으뜸에서 나온=====> 우등(優等)

70) 우두머리 단어 분할해서=====>두목(頭目), 우이(牛耳)

71) 님들(사람들) 사이에 끼인 가운데 존재=인간(人間)

사람인 경우 사람의 스 이 변음되었다고 보아도 되고, 사람을 칭하는 -이 그대로 ‘인’이라고 보아도 됩니다.

72) 임자 돌린 =====>주인(主人)

임자: 1 . 물건을 소유한 사람. 2 . 물건이나 동물 따위를 잘 다루거나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3 . 부부가 되는 짝.¹⁶⁴⁾

73) 들이는 구멍=입구(入口), 입문(入門)

구멍에서 구는 입구(入口)의 구, 명은 입문(入門)의 문.

74) 차근차근 곧게 세워 만들어진 것=====> 건물(建物)

75) 비슷한지 대보다=====> 대비(對比)

76) 데리고 동무처럼 다니다=====> 대동(帶同)

77) 두럭 울타리(무리)=====> 동리(洞里)

두럭: 1 . 놀이나 노름을 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의 무리. 2 . 여러 집이 한데 모여 이루어진 집단.¹⁶⁵⁾

78) 비아냥거리다===>비난(非難)

비아냥거리다, 비웃다, 비꼬다, 빈정대다=비(非)

79) 곧게 세운 거룩한 곳(고장)과 나라 ==>건국(建國)

80) 산봉우리 돌다, 우두머리=====>봉두(峰頭)

164) 네이버 국어사전

165) 네이버 국어사전

우리 방언 '봉두리' 그대로===>봉두(峰頭)

81) 돌치어 나타나다===>돌출(突出)

82) 차근차근 곧추 쌓아 세우다====>건축(建築)

83) 차근차근 곧추세우고 흙과 돌로 쌓다=====>축성(築城)

84) 차츰차츰 어린말 '차츰차츰' 돌린===>점차(漸次), 점점(漸漸), 차차(次次)

85) 다다르다===>도달(到達)

86) 푸짐해서 좋다====>풍족(豐足)

87) 별빛이 초롱초롱하다=====>찬란(燦爛)

88) 목소리가 초롱초롱하다/찌렁찌렁하다 =====>청량(淸亮)

89) 목소리가 초롱초롱하고 아름답다=====>청아(淸雅)

90) 정갈하고 깔끔하다=====>정결(淨潔, 精潔)

91) 마음을 정갈히 하고 삼가다=====>정성(精誠)

92) 모시어 받들====>시봉(侍奉), 봉시(奉侍)

93) 모신다 돌린=====>神明(神明)

‘밝다’의 ㅂ 변음 ‘명’

94) 신불과 가족의 품안====>편안(便安)

95) 주인을 모시고 종종걸음으로 뒤쫓아 다니는 종===>시종(侍從)

종: 순 우리말입니다. 한자어가 그대로 ‘쫓을 종(從)’입니다.

96) 무지무지 크다====>무지막지(無知莫知)하게 크다

97) 무지무지 거칠게====>무지막지(無知莫知)하게 상스럽다

98) 번거롭게 복잡거리다(벽적거리다)====>번잡(煩雜)

븀비고 부산거리고 북적거리다=분잡(紛雜)

99) 국가와 사회를 받들고 섬기다=====>봉사(奉仕)

100) 조상의 제사를 받들고 섬기다 =====>봉사(奉祀)

101) 웃어른을 받들고 섬기다===>봉사(奉事)

102) 사귀다 그대로=====>사교(社交)

103) 국가에 대한 차오르는 섬기고 삼가는 마음=====>충성(忠誠)

104) 뫼를 살펴보는 일===> 성묘(省墓)

105) 바른 길을 다니고 따르고 다스리고 깨닫고 어질고 너그러운 마음을 닦다
=====> 도덕(道德)

106) 문에 붙여두게 끄 적은 글자=====> 부적(符籍)

107) 몸과 토기에 새긴 무늬와 쓴 글=====> 문서(文書)
혹은 하늘의 말(뜻)을 묻다=문(文)

108) 묻고 답 달다=====>문답(問答)

109) 어린이를 가르치고 키우다=====>교육(敎育)

기르고 키우다 의 ㄱ 변음 혹은 ‘르’와 ‘우’ 그대로 ‘육’

110) 무슨 돌린=====> 십마(什麼)

현 중국음은 '선뫼'입니다.

111) 소를 왼편으로 모는 소리 ‘좌라’ =====>좌로(左路)

왼쪽의 ‘왼’ 의 변음으로 ㅅ에서 ㅈ 으로

112) 오른쪽, 소를 모는 소리 ‘이라’ =====> 우로(右路)

113)둘 가운데=====>뫼간===>중간(中間)

114) 아둔하다 그대로 =====>우둔(愚鈍)하다

어리석다 + 뜨다(굽뜨다)=아둔하다===>우둔하다¹⁶⁶⁾

115) 상냥하다 거의 그대로===>선량(善良)

사근사근(사분사분) + 나긋나긋=상냥하다===>선량(善良)

116) 근심 그대로=====> 근심(懃心)

근심은 우리말입니다. 근심할 근(勤)이 있고, 心을 붙인 근심할 근(懃)도 있습니다.

117) 마음을 바로 잡아 ===>조심(操心)

잡다 그대로 잡을 조(操).

118) 마음을 버려 놓아서===>방심(放心)

119) 굳세다===>강세(強勢)

꿋꿋하다+ 세다=굳세다===>강세

120) 굳건하다 돌린===>건강(健剛)

121) 굳건하고 즐거워 편하다===>건강(健康)

122) 부디 단단히 받아달라고 붙인 말===>당부(當付), 부탁(付託)

123) 스승으로 섬기다==>스승하다=====>사사(師事)

124) 급작스럽게 시를 짓다 =====> 급작(急作)

125) 걸터앉아 쉬거나 몸을 싣는 자리===>결상(床)===>거상(踞床)

126) 뿌리(뿌랭이)에서 나온/내려온=====> 본래(本來)

127) 너비(널리) 벌리어 퍼트리다 =====>반포(頒布)

128) 나무를 베다===>벌목(伐木)

129) 그만두고 그치지다=====>금지(禁止)

166) 영어는 'dull'입니다.

그치다의 그의 변음 ‘지’ 로 보아도 됩니다.

130) 지우고 거두어 가버리다====> 제거(除去)

131) 마음이 오종종하고 좁다=====>옹졸(壅拙)

잘고 좁스럽다=줄(拙), 출(出)이 줄 되는 것도 우리말에 기준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132) 서로 붙잡아 부축하다===>상부(相扶)

133) 아버지와 어미=부모(父母)

134) 아버지와 스승, 아버지 겸 스승=====> 부사(父師)

135) 큰 소리=====> 고성(高聲)

136) 부아(부화)가 난다=====> 분노(忿怒, 憤怒)와 화(火)

137) 밥과 차린 음식들=====> 반찬(飯饌)

138) 동부===>두부(豆腐)

동부: <식물> 1 . 콩과의 한해살이 덩굴성 식물. 잎은 세 번 갈라지고 자주색, 흰색 따위의 나비 모양의 꽃이 총상(總狀) 화서로 핀다. 종자는 팔과 비슷하나 약간 길고 식용한다. 사료, 녹비(綠肥)로 쓰인다. 한국, 동남아시아, 중앙아프리카, 미국 등지에서 재배한다. [비슷한 말] 강두(豇豆)·광저기. (Vigna sinensis) 167)

139) 뿌연 김====>연기(煙氣)

140) 허름하고 초라하다=하찮다=====>하천(下賤)

141) 소식을 알리고 나누다=====> 언론(言論)

142) 고달프다(고단하다)====> 곤(困)과 돌린 피곤(疲困)

143) 바장이면서 헤매다===>배회(徘徊)

바장이다: 1 . 부질없이 짧은 거리를 오락가락 거닐다.168)

167) 네이버 국어사전

168) 네이버 국어사전

144) 대단히 많게 시알리다=====>대다수(大多數)

145) 꼭대(기) 그대로=====>고대(高臺)

146) 골와라 그대로 =====> 와라(蝸螺)

골와라: [옛말] ‘소라(소랏과의 연체동물)’의 옛말.¹⁶⁹⁾

147) 과줄 거의 그대로 =====>과자(菓子)

148) 고리 그대로=====>고로(栲栳)¹⁷⁰⁾

고리: 키버들의 가지나 대오리 따위로 엮어서 상자같이 만든 물건

149) 구부리다 그대로=====> 구(僵)¹⁷¹⁾,부(俯),루(僂)

150) 머리와 무릎을 구부리다=====>굴복(屈伏)

151) 마음에서 생각하다=====>사모(思慕)

마음=모(慕), 생각=사(思)

152) 끔찍이 아긴다=====>극진(極盡)

153) 비스듬히 기울어지다 돌려서=====>경사(傾斜)

154) 움직이다=====>운전(運轉)

155) 이끌다 돌려서 =====>견인(牽引)

156) 억눌러 잡아끌어 줄이다=====>억제(抑制)

157) 끈질기게 할려는 힘 돌려 ==>지구력(持久力)

힘의 변음 ‘력’, 우리말 안의 예로는 ‘울력’¹⁷²⁾ 이 있습니다.

158) 사이가 갈리어 멀어지다=====>이별(離別), 별리(別離)

169) 네이버 국어사전

170)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171) 구(餵)도 있습니다. 네이버 한자 사전 글자체. 구부릴 국(跣).

172) 네이버 국어사전,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여 일함. 또는 그런 힘.

159) 나란히 벌려 놓다=====>나열(羅列)

160) 퍼지다 그대로=====> 파전(播傳), 돌려서 전파(傳播)

161) 갓을 걸다 돌려=====>괘관(掛冠)

162) 한갓지다 그대로=====> 한가(閑暇)

한갓지다: 한가하고 조용하다.¹⁷³⁾

163) 한갓진 고을 돌려서=====>고향(故鄉)

향(鄉)은 ‘시골’의 ‘ㅅ’ 변음 되어 ‘ㅎ’ 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64) 좁은 마음으로 서둘러서 서투르게 일하다=====>줄속(拙速)

165) 몰래 돌린=====>내밀(內密)

안의 변음 ‘내’, 몰래 축음 ‘밀’

166) 몰래 가리방다=====>비밀(秘密)

167) 흐뭇하고 좋다=====>흡족(洽足)

168) 이사다 변음=====>연속(連續)

169) 뽠나다=====>분노(忿怒)

170) 흐뭇하고 기쁘다(뿌듯하다)===>행복(幸福)==>해피happy¹⁷⁴⁾

171) 몹시 무섭고 사나운 동물=====>맹수(猛獸)

172) 이어가서 끝맺음하다/꽤매다=====>연결(連結)

173) 호되다 그대로 =====>혹독(酷毒)

174) 호젓하다 그대로=====>한적(閑寂)

175) 다만, 다만지 그대로=====>단지(但只)

173) 네이버 국어사전

174) ‘우리말에서 나온 영어’는 차후에 다룰 예정이다.

다만지: [옛말] ‘다만’의 옛말.¹⁷⁵⁾

176) 견주다 그대로=====>경쟁(競爭)

177) 보살피고 간직하다=====>보관(保管)

178) 부닥치다 줄여 =====>봉착(逢着)

179) 털어 놓다=====>토로(吐露)

180) 술렁술렁하다=====>소란(騷亂)

술렁술렁하다: 어수선하게 자꾸 소란이 일다.¹⁷⁶⁾

181) 갈(대)=====>갈의 초성에서 나온 '가(葭)'¹⁷⁷⁾와 종성 ㄹ에서 나온 '로(蘆)'

182) 박쥐=====> 복(蝠)과 편(蝙蝠), 직(蠟)

박쥐는 밤의 쥐라는 것으로 ‘밤쥐’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183) 싱싱하고(새롭고) 산뜻하다=====> 신선(新鮮)

184) 비슷한지 견주어 보다=====>비교(比較)

185) 도가니=====>도관(옛말)=====>도관(陶管)

도가니 옛말은 '도관'¹⁷⁸⁾ 입니다. 한자음 도관(陶管) 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186) 갖추고 비스다=====> 구비(具備)

구비하다(具備)=갖추어 꾸미고 비스다.

비스다¹⁷⁹⁾: [옛말] ‘꾸미다’의 옛말.

187) 건져 위로 올리다=====>구원(救援)

구(救)=건지고 꺼집어내고 , 원(援)=위로 올리고 일으키는 것을 도우다.

175) 네이버 국어사전

176) 네이버 국어사전

177) 네이버 한자사전 글자체

178) 네이버 국어사전

179)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188) 연모와 연장으로 갖추고 꾸미는 것====> 용구(用具)

연장, 연모는 순 우리말입니다.

연장: 1 . 어떠한 일을 하는 데에 사용하는 도구.¹⁸⁰⁾

연모: 물건을 만들거나 일을 할 때에 쓰는 기구와 재료.¹⁸¹⁾

연장과 연모의 연의 용구(用具)의 용.

지게, 배게, 도리깨 의 -게=구

189) 얼마에 팔다====>판매(販賣)

팔다=판(販), 얼마/얼매=매(賣) 혹은 ‘팔다’의 변음 ‘매(賣)’

190) 쓸고 씻다=====>소식(掃拭)

191) 빠개다 그대로====>파괴(破壞)

192) 썩썩 싸게 싸게====>신속(迅速)

‘빠르게’의 변음이 우리말 안에서 ‘싸게 싸게’, 한자어에서 ‘신속’으로 나옵니다.

193) 딸랑딸랑 방울====>탁령(鐸鈴)

우리말 ‘의성어’ 그대로 흉내 낸 한자어입니다.

194) 박달나무 줄인====>단목(丹木)

195) 개롭다, 가법다=====>그대로 경박(輕薄)

196) 손뼉치기====>박수(拍手)

197) (재능과 힘을) 피우고 휘두르다====>발휘(發揮)

피우다=발(發), 휘두르다=휘(揮)

198) 깨우쳐 알다====>각오(覺悟)

199) 밥과 국=====>반 갱(飯羹)

180) 네이버 국어사전

181) 네이버 국어사전

밥의 옛말 '반' 그대로 반, 국의 옛말 '깡'¹⁸²⁾ 그대로 '갱'

200) 절편=====>거의 그대로 전병(煎餅) 혹은 절병(切餅)

201) 읊조리다=====>음조(音調)

202) 얼굴머리=====>안면(顔面)

얼굴=안(顔), 머리=면(面)

203) 반빗=====>반비(飯婢)

반빗: 1 . 예전에, 반찬 만드는 일을 맡아 하던 직책. 2 . [같은 말] 반빗아치(예전에, 반찬을 만드는 일을 맡아 하던 여자 하인).¹⁸³⁾

204) 벼슬=====>배신(陪臣)

벼=배(陪), 슬=신(臣)

205) 이어져 엮어진 것=====>인연(因緣)

206) 도둑=====>도적(盜賊)

ㄷ 이 ㅈ 으로 변한 ‘적’

207) (몸을) 바꾸어 뒤척이다=====>반측(反側)

208) (숨긴 일이) 벗겨지다 =====>발각(發覺)

옷이 벗겨지면, 벌거숭이 혹은 빨가숭이입니다.

209) (물건을) 벗겨 보다 =====>발견(發見)

210) (성을) 발끈 내다=====>발기(勃起)

211) 발랑발랑=====>발랄(潑刺)

발랑발랑: 1 . 아주 가볍고도 재빠르게 잇따라 행동하는 모양. 2 . 아주 가볍고도 재빠르게 잇따라 움직이는 모양.¹⁸⁴⁾

182)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가져옴.

183) 네이버 국어사전

184) 네이버 국어사전

212) 퍼덕퍼덕, 펄떡 =====>발랄(跋刺)

퍼덕: 1 . 큰 새가 가볍고 크게 날개를 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2 . 큰 물고기가 가볍고 크게 꼬리를 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3 . 큰 깃발이나 빨래 따위가 바람에 거칠게 날리는 소리. 또는 그 모양.¹⁸⁵⁾

발랄(跋刺): 1. 물고기가 뛰는 소리 2. 새가 나는 소리¹⁸⁶⁾

213) 뿌리 뽑다 돌려서=====>발본(拔本)

214) 비롯하여 생겨남=====>발생(發生)

215) 밖으로 소리냄=====>발성(發聲)

216) 발쇠하여 일러 가르쳐주다=====>발고(發告), 고발(告發)

발쇠 : 남의 비밀을 캐내어 다른 사람에게 넘기시 알려 주는 것. [비슷한 말] 발.¹⁸⁷⁾

217) 뽑은 좋은 이삭=====>발수(發穗)

뽑다=발(發), 이삭의 삭의 수(穗)

218) 소리쳐 불러 (사람을) 모으다 =====>소모(召募)

219) 번거롭고 더로움=====>번독(煩瀆)

220) 동낭에서 나온 ===>동량(洞糧)

221) 방귀===>그대로 방기(放氣)

222) 똥과 오줌 =====> 시(屎)와 요(尿)

똥¹⁸⁸⁾, 시동: ‘똥’의 방언(전남, 제주).¹⁸⁹⁾

옛말과 방언을 비교해 보면, 초성 ㅅ 이 ‘시동’의 ‘시’가 되고 한자어 ‘시(屎)’가 됩니다.

오줌 줄이면 ‘요(尿)’

185) 네이버 국어사전

186) 한글학회 조선어큰사전

187) 네이버 국어사전

188) 네이버 국어사전, [옛말] ‘똥’의 옛말.

189) 네이버 국어사전

223) 방계====>방기(虵蜥), 팽기(虵蜥)

224) 하소연하다====>호소(呼訴)

225) 번거롭고 까다롭다====>번가(煩茄)

226) 바꾸고 옮김====>번역(翻譯)

227) 임금/님금====>왕군(王君)

228) 속이다[소기다]====>사기(詐欺)

229) 길고 더르다====>장단(長短)

길다=질다=장(長), 짧다=더르다=단(短)

더르다: [옛말] ‘짧다’의 옛말.¹⁹⁰⁾

230) 모습====>모상(貌相), 모양(模樣)

모=모(貌), ‘양(樣)’의 경우 ‘습--->향---->양’ 이란 변음 경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습 거의 그대로 모상(貌相)

231) 동무====>동료(同僚)

동무는 ‘닿은¹⁹¹⁾ 무리’ 인데, 무리의 ‘리’에서 나온 ‘료’.

232) 같고 다르다 =====>동(同)과 타(他), 차(差)

같다의 옛말 닿다=동(同), 다르다의 가획 변음 ‘타’, 그 ‘타’의 변음 ‘차’

233) 수저====>시저(匙箸)

우리말 그대로 한자어가 되었습니다.

234) 하늘로 부터 받은 마음 씩씩이====>부성(賦性)

하늘로 부터 받은=부(賦), 마음 씩씩이=성(性)

190) 네이버 국어사전

191) 네이버 국어사전, [옛말] ‘같다’의 옛말.

6. 중요한 소고(小考)들

1) 배 고찰

앞에서 추리했다시피, 고대 한국인들은 모든 사물에 ㅎ 을 붙였는데 배의 고어도 '뱅/방'입니다. 그 보충 증거가 한자어 종성입니다. 우리말은 ㅎ 탈락 된 것이고, 한자어는 ㅎ 이 ㄱ 으로 변한 것입니다. 먼저 운송 도구 '비'192)입니다.

'뱅/방193)' ----> 한국어 배, 한자어 박(舶)194)

신체 '배'195)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나 이마, 팔(뺨)' 에 ㅎ 이 붙어 있으니, 배에도 ㅎ 이 붙어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한자어 종성 ㄱ 이 되었습니다.

'뱅/방' -----> 한국어 배, 한자어 '복(腹)' 196)

베 포(布)의 첫 음도 '뱅'이라고 추정합니다.

ㅂ 이 ㅍ 으로 변하고 ㅎ 이 우리말과 한자어에서 모두 탈락했습니다.

2) 마을과 부락(部落)사이 고찰

마을의 옛말은 ' 믅쑼'197)입니다. 마을의 '마'가 'ㅂ' 으로 변음해서 '부' 가 되고, 둘째 음에서 종성 'ㄹㅎ' 이 풀어져 '락' 이 됩니다.

3) 도랑과 가람의 고찰

도랑은 작은 내, 가람은 큰 내 입니다. 도랑의 옛말은 '돌' 혹은 '똥'198) 입니다. 옛말과 현대어를 비교해서 '종성 ㄹ' 이 늘어져 '랑' 이 되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고, ㄹ 에 원래는 ㅎ 도 붙어 있어 'ㄹㅎ' 이 최고 원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람' 의 옛말도 '갈' '값' 임을 추리할 수 있고, 더구나 한자어 '강(江)'의 '종성 ㅇ' 은 'ㅎ 의 변음'임을 더욱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랑의 경우 한자음은 무엇일까요? '도랑 독(瀆)', 역시 우리 원 발음 '똥'에서 '종성 ㅎ' 이 ㄱ 으로 변했습니다. 도랑의 경우, 발음을 표현하는 부분 음가는 매(賣)입니다.199) 하지만 우리말 '도랑/똥' 에 맞추어 '독'이 된 것입니다. 가람에 강(江), 도랑에 독

192)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193) 편의상 '비' 아래 ㅎ 이 아닌 현대 한글을 가지고 표현했습니다.

194) 영어 '보트 boat' 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영어 't' 가 종성 ㅎ입니다.

195) 비,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196) 한자어는 종성 ㅎ 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고, 영어 belly에서 -lly 가 우리말 종성 ㄹㅎ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7)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198) 네이버 국어사전

(瀆), 고랑(밭고랑)에 견(畎), 과연 우연히 가능할까요? 이는 우리 고대 한국어에 맞춘 또 하나의 언어인 한자어입니다.

4) 초성에 자음이 2개인 경우 고찰

옛말에 초성 자음이 2개인 경우 현재 우리말과 한자어에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예로 ‘ 짹 ’의 옛말은 ‘ 짹 ’²⁰⁰⁾입니다. 현 한국어는 초성 2개 자음 중 뒤의 ㅈ 에 맞추고, 한자어는 ‘배(配)’로서 ‘ㅂㅈ’ 중 ‘ㅂ’ 에 맞춘 음가가 됩니다. 초성 2개인 경우 대다수 이런 규칙 적용을 받습니다.

5) 물, 미즈, 바썬, 워터

‘허영호 님’은 ‘조선어 기원론’에서 바닷물의 바다를 통해서 water 을 고찰했습니다. 저는 새로이 다음 견해를 제시합니다. 물의 고어는 ‘믈’ 이고, 더 고어는 ‘뽇’ 이었다고 봅니다. 우리말 ‘뽇’ 에서 ㅁ 이 ㅂ 으로 바뀌고 , ㄷ ㅎ 이 ㅌ 으로 변했다고 보면, 독어 Wasser[바썬]이고, 독어의 ㅂ 이 영어의 ㅅ , -sser 이 영어에서 -ter 로 변합니다.

6) ‘ㄷㅎ’ 으로 돌아온 예 고찰

‘뽇다’ 의 옛말은 ‘뽇다’²⁰¹⁾ 입니다. 놀랍게도 옛말 ‘뽇다’ 보다 현대어 ‘뽇다’가 더 고어에 다가간 언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7) 소(沼)와 송

네이버 국어사전에 ‘송’이라 나온 한자어 ‘소(沼)’ 가 있습니다. 이는 제가 주장한 ㅎ 종성이 한자음에도 존재했다는 증거입니다.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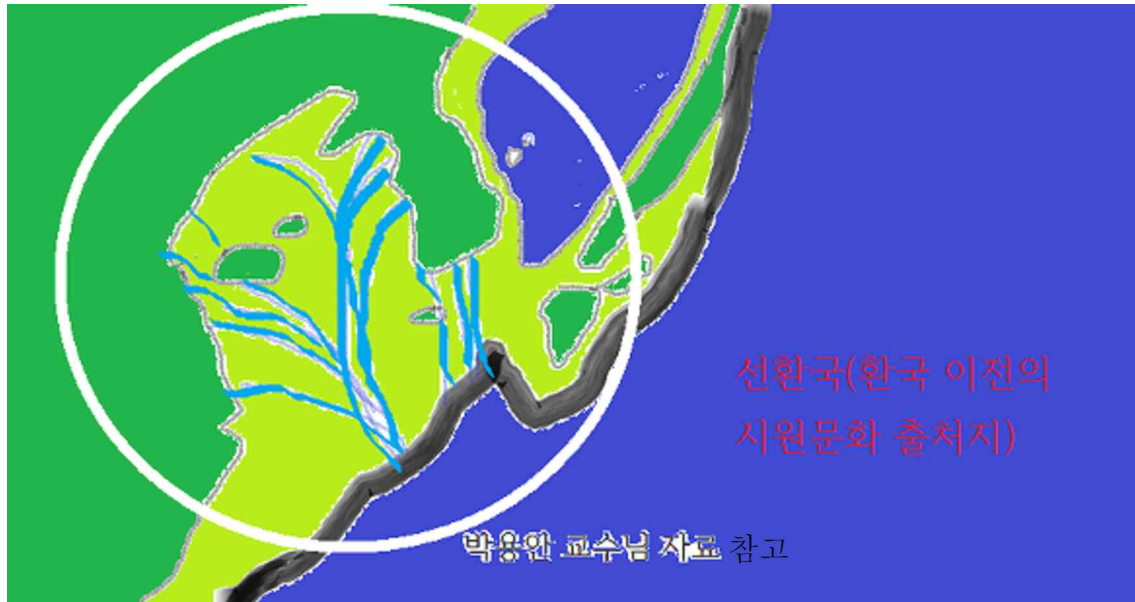
이번 자료 정리는 우리말에서 나온 한자어 증명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루고자 한 바이므로 ‘한국어에서 나온 중어, 일어, 영어’ 는 다음 기회에 다룹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역사 부분도 다음에 다룰 것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한국황해설’²⁰²⁾ 만 조금 설명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199) 네이버 한자사전

200) 네이버 국어사전 글자체

201) 네이버 국어사전

202) 사후(casahoo)님의 동아시아의 황해, <http://blog.naver.com/casahoo/20001462819>, 2004년 주장



지금으로부터 대략 만년-만 2천년 전(기원전 만년경-8천년경) 빙하가 녹으면서 남으로부터 바닷물이 유입 됩니다. 그 전 시기에 현 바다들은 모두 초원지역이었고 서해는 해발 80m 의 육지였으며 세계 최대의 강²⁰³⁾이 흐른 가장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물이 들어 오기 전 이 풍요의 땅에 전 인류는 모여들었고 이것이 ‘구이(九夷)’ 라고 했던 것이고, 우리 겨레는 주로 동쪽 지역에 위치했으니 ‘동이(東夷)’라고 한 것이고, 그 첫 임금님을 ‘환인씨(桓因氏)’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첫 문명은 ‘환국황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도서

1. 서정범, 우리말의 뿌리, 고려원, 1989
2. 박대중, 나는 언어정복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대중언어연구소, 1999
3. 허영호 지음, 김용환 엮음, 조선어기원론, 정우서적, 2014
4. 훈민정음의 이해, 신상순·이돈주·이환득, 한신문화사, 1988

203) 한반도 초기 문명의 발상지...서해 갯벌, [홍익희의 한민족 이야기](3) 문명의 기원, 서해 갯벌한민족 이야기, 홍익희 세종대 교수님